

**NOROO**

NOROO

Winter. 2016



Winter. 2016

도록

**NOROO** Quarterly Magazine | 2016년 겨울 38호

**NOROO**

**Special Theme****별을 향하다**

**04** **New Year's Message**  
“세상에 없는 길,  
NOROO가 만드는 새로운 길!”

**08** **Essay**  
별에서 온 그대들

**10** **Information**  
별, 우주 속 별별 이야기

**14** **Interview**  
당신의 별을 읽어드립니다  
별자리 스토리텔러 사마리아

**Culture Gallery**

**18** **Restaurant**  
특별한 날, 우리만의 테이블

**20** **Finance**  
아는 만큼 줄어든다  
우리집 통신비 절약 노하우

**22** **Exhibition**  
전시, 색과 빛을 엿보다

**24** **Webtoon**  
웹툰, 이야기의 시작

**NOROO People**

**28** **Focus on NOROO I**  
컬러로 혁신하라! 2016년 올해의 컬러  
2016 노루 인터내셔널 컬러 트렌드 소

**32** **Color of the Year**  
2016년 올해의 컬러, 로즈คว초와 세레나티

**34** **Focus on NOROO II**  
우리의 이름다운 만남  
NOROO 70주년 기념 사진전

**38** **Family Trip**  
그렇게 우리는 친구가 된다  
(주)노루홀딩스 브랜드 커뮤니케이션실  
제갈은경 대리와 친구들

**42** **Special Store**  
컬러를 파는 페인트 가게  
전략특약점 1호 매장 페인트마켓

**46** **Global NOROO**  
카자흐스탄의 첨단온실, 미래를 재배하다

**48** **News Briefing**

**50** **1 Minute Guide**  
눈을 감아요. 들려드릴게요!

**51** **Behind Cut**

**NOROO 그룹 사보 담당자**

(주)노루홀딩스 인사총무팀 장원석 과장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42 캐피탈타워 A동 10층 T:02-2191-7716

(주)노루페인트 마케팅전략팀 지남철 과장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박달로 351 T:031-467-6128

(주)아이피케이 총무팀 배부근 부장  
부산광역시 연제구 중앙대로 1000(국민연금 부산회관 17층) T:051-580-8363

(주)노루오토���팅 전략기획팀 백현정 대리  
경기도 화성시 장안면 장안공단 7길 28 T:031-8059-9517

(주)노루케미칼 인사총무팀 한준 주임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경단로 285번길 13 T:031-599-7276

(주)노루비케미칼 경영지원팀 이승아 사원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백석공단1로 111 T:041-620-6200

(주)노루로지넷 종합지원팀 전희경 과장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박달로 351 T:031-467-6363

(주)노루알앤씨 인사총무팀 현준 주임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첨단로 285번길 8 T:031-599-7276

(주)칼메이트(주) 업무총괄팀 유은아 사원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박달로 351 T:031-467-6379

(주)노루코일코팅 지원팀 박서진 대리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박달로 351 T:031-467-6486

## “세상에 없는 길, NOROO가 만드는 새로운 길!”

---

노루가족 여러분, 2016년 새해를 맞이하여, 여러분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창업 71년째를 맞이하는 올해, 우리는 회사 발전의 변곡점에 와 있습니다. 국내 시장에서 경쟁력을 더욱 강화하고 해외 시장을 심도있게 파고들기 위해 새로 창업을 한다는 마음자세로 성장 전략을 재점검하고 이를 필히 성취하기 위해 각자 맡은 바 임무 달성을 위해 노력할 것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우리의 실적은 쉽지 않은 기업 환경 속에 그룹 매출 신장은 목표에 다소 미달하였으나 수익성은 향상되어 원자재價 허락을 감안하더라도 지난 수년간 부단한 노력의 성과가 나타나고 있음을 매우 고무적입니다. 뒤돌아보건대, 2015년은 ‘뿌리 깊은 NOROO, 미래로!’라는 가치 아래 NOROO의 저력을 발휘하여 훌륭한 성과를 이룬 한 해였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여러분의 노고에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새해 한국의 전방산업들의 전망이 그리 좋지만은 않습니다. 우리 그룹의 많은 고객들이 내수와 해외 시장에서 경쟁력을 끌어 올리는 데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제는 동아시아 경제권을 하나로 보고 우리의 사업 성장 전략을 새로이 짜서 적극적으로 실현해 나아가야 할 때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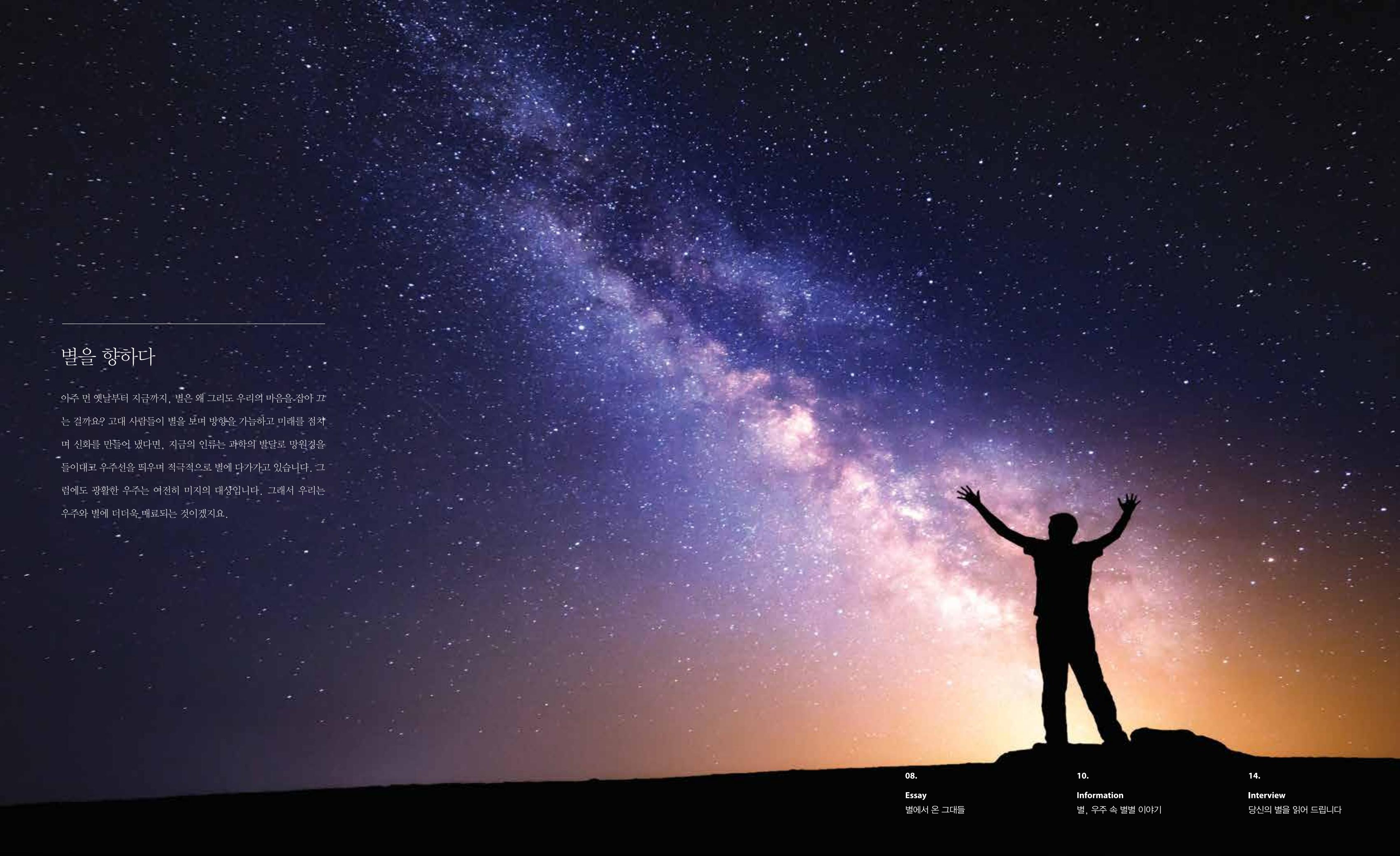
시야를 더욱 넓히고 현지 시장 상황에 맞는 마케팅 전략을 수립하고 이에 맞는 제품과 서비스를 개발하여 공급을 해야 합니다. 한국 시장에서의 경험은 참고는 될 수 있으나 자칫 우리를 고정관념에 묶어 놓을 수 있음을 경계해야 하겠습니다. 현지의 문화와 구매력, 관습 등 시장 상황을 철저히 분석하여 그에 맞는 시장 참여 전략을 구사할 줄 알아야 하겠습니다.

오늘 저는 2016년 그룹의 경영지표를 우리 회사 창업 회장님의 사상을 결집한 NOROO WAY의 경영철학인 ‘세상에 없는 길, NOROO가 만드는 새로운 길’로 제정합니다. 기업과 시장 환경의 급격한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모든 것을 변화시켜야 하고 새로운 것을 시도하는 도전 정신과 용기가 필수입니다. 지난 70년간 응집된 우리의 도료, 수지기술을 바탕으로 중국을 포함한 아시아 시장에 적극적으로 진출함과 동시에 농생명 신사업의 기틀을 신속히 마련함으로써 신성장 동력을 만들어 나이갑시다.

끝으로 많은 난관 속에서도 발전적 노사상생의 새로운 문화 창조에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노루페인트 노동조합 박연수 위원장, 노루켐 노동조합 박태현 위원장, NAC 노동조합 이지행 위원장, NRB 노동조합 류도연 위원장 그리고 집행부와 조합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노루가족 여러분, 새해를 맞이하여 맥내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하시기를 기원합니다.

2016년 1월 4일  
회장 한영재



## 별을 향하다

아주 먼 옛날부터 지금까지, 별은 왜 그리도 우리의 마음을 잡아끄는 걸까요? 고대 사람들이 별을 보며 방향을 가늠하고 미래를 짐작하며 신화를 만들어 냈다면, 지금의 인류는 과학의 발달로 망원경을 들이대고 우주선을 띠우며 적극적으로 별에 다가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광활한 우주는 여전히 미지의 대상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주와 별에 더더욱 매료되는 것이겠지요.

08.

Essay

별에서 온 그대들

10.

Information

별, 우주 속 별별 이야기

14.

Interview

당신의 별을 읽어 드립니다



## 별에서 온 그대들

과학자들은 우리의 근원을 별에서 찾습니다. 우리가 밟을 딛고 있는 이 지구는 우주의 탄생으로부터 생성되었고 우리의 몸을 이루는 원자 역시 거기서 출발했다는 것이죠. 저 광활한 우주와 내가 그렇게 연결되었다고 생각하면 평범한 사람들 모두 예사롭지 않게 보입니다. 어쩌면 우리 모두가 '별에서 온 그대'인 도민준이자 B612로부터 온 어린왕자이고, 크립톤 행성의 원자를 한 조각 지닌 슈퍼맨일 수도 있으니까요. 이렇듯 우리에게 끝없는 상상을 가능케 하는 것, 별입니다.



### 경이로운 밤하늘

'만약 당신이 아름다운 별빛 아래에서 밤을 지새운 적이 있다면, 당신은 모두가 잠든 시간에 또 하나의 신비한 세계가 고독과 정적 속에서 깨어난다는 사실을 알고 있을 것입니다.' 알퐁스 도데의 소설『별』에서 목동은 아리따운 아가씨 스텔라파네트와 나란히 앉아 별을 보며 생각합니다. 낮선 산 속에서 뜻하지 않은 밤을 맞게 된 아가씨의 두려움을 달래 주기 위해 목동은 밤하늘을 짚어가며 별들의 이름과 이야기를 들려 주지요. 은하수에서 큰곰자리로, 오리온과 시리우스로 옮겨가던 이야기가 목동 별에 이르자 아가씨는 그만 나른해진 머리를 목동의 어깨에 기대고 단잠이 듭니다. 가장 아름답고 빛나는 별에게 어깨를 내어준 목동은 소리없이 운행하는 찬란한 별들 아래서 밤을 지새우지요.

우리는 별 아래서 목동과 같은 경이로움과 두근거림을 경험합니다. 밤하늘을 신들이 앞으로의 계획을 적어놓은 예언서라고 생각한 먼 옛날이나, 우주에 망원경과 인공위성을 띠우고 별들의 성분이며 종류를 분석하는 요즘도 그 경외감과 아름다움은 여전합니다. 오히려 우주에 대해 알면 알수록, 모르는 게 더 많다는 사실에 밤하늘과 별은 더욱 신비롭게 느껴지지요. 어쩌면 모르는 게 다행인 것 같습니다. 다 알아버린다면 '별에서 온 그대들'은 더이상 없을 테니까요.

### 인간과 별

별자리를 만들어 목동에게 이야기거리를 제공한 이들은 수천년 전의 목동, 메소포타미아의 양치기들이었습니다. 별은 오래 전부터 관측의 대상이었습니다. 별의 움직임을 꾸준히 관찰하여 그 규칙을 지구의 변화와 연결시킨 이들은 점성학자로서 앞날을 예고하는 능력을 발휘했지요. 이러한 점성학은 권력자들에게 양날의 검이 되어 정적을 없애거나 자신의

지위를 정당화하는 데 이용되기도 했습니다. 실생활에서도 별은 유용한 것이어서 언제 씨를 뿌려야 하는지, 어떻게 가꾸어야 할지를 알려주었고 수렵 채집 사회에서는 동물의 이동을 가늠해 주었으며 인류의 항해와 이동에 나침반의 역할을 했습니다.

18세기에서 19세기에 걸쳐서는 천체 관측과 천문학이 취미 활동으로 유행하기도 했습니다. 20세기에는 냉전시대의 우주 과학 경쟁과 함께 달 탐사 등의 획기적인 사건들이 일어났지요. 그러나 과학의 발전이 이루어지는 동시에 도시는 점점 더 늘어나고 밝아져서 일상 속의 별 구경은 오히려 더 어려워졌습니다. 별에 대한 과학적 지식이 쏟아지는 지금이지만 못 사람들은 옛 사람들보다 더 별을 모르고, 친숙하지 않은 게 사실이지요.

### 별에 다녀온 우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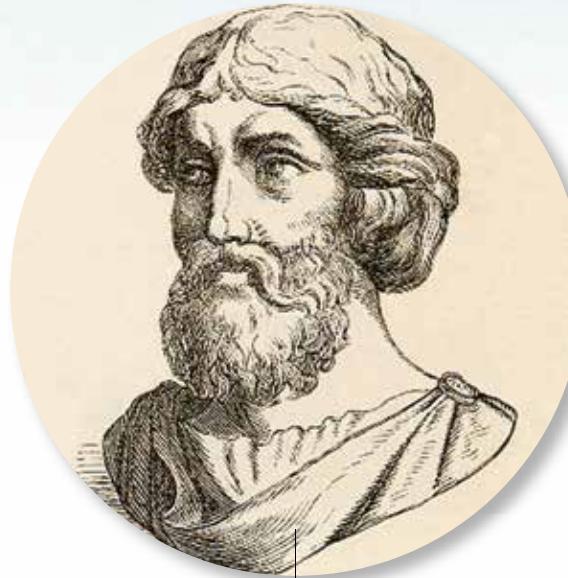
최근 TV에선 '별에서 온 그대'가 인기였지만, 극장에서는 '별에 다녀온 우리'가 인기였던 것 같습니다. 최근 인기를 모은 SF영화 〈마션〉, 〈인터스텔라〉, 〈그래비티〉 등은 모두 우주를 향한 인간의 역경과 지구로 돌아오고자 하는 본능을 담고 있습니다. 그 시작은 저명한 천문학자 칼 세이건의 원작을 영화화한 1997년의 〈콘택트〉에 있지 않나 합니다. 공상과학 영화 하면 떠오르는 외계인의 침공, 행성 간의 전투 등에 비해 이 영화들은 '정말 저런 일이 언젠가는 일어날지도 몰라'라는 현실적 생각을 하게 합니다. 우주는 넓고 어딘가 외계인이 살고 있으며 서로 전투를 벌이고 있을지도 모르지만, 우리가 결국 살아야 하고 지켜야 하는 곳은 이 지구별이니까요. 오늘은 이 지구별에 도착한 별빛을 마중하러 베란다에라도 나가볼까요? 몇 만 광년을 달린 후 광공해와 대기오염을 뚫고 도착한 별빛이 외롭지 않도록요.

# 별, 우주 속 별별 이야기

별은 밤에만 볼 수 있다고요? 실은 낮에도 우린 태양이라는 별을 보고 있습니다. 태양은 우리은하 안에 있는 5000억 개의 별들 중 하나입니다. 이러한 은하는 우주 안에 무수히 많은 데다가 빅뱅으로 시작된 우주는 지금도 팽창 중이어서 그 끝을 알 수 없습니다. 이는 기원전 그리스인으로부터 연구가 시작된 이래 철학자와 철학자, 천문학자들의 끈질긴 관찰과 발견, 주장과 수정을 거듭하여 현재에 이른 것입니다. 방대한 천문학의 세계에서 건져낸 별별 이야기, 들어볼까요?



01



02



03



04

## 별의 탄생과 소멸

별은 어떻게 탄생하게 되는 걸까요? 빅뱅으로 우주 공간에 채워진 수소와 헬륨 구름은 서서히, 그러니까 10억 년쯤에 걸쳐서 모이고 뭉쳐지며 회전하기 시작해 속도를 높여갑니다. 이 뭉쳐진 가스와 먼지 덩어리를 성운이라고 하지요. 성운 중심부의 수소 원자들이 고밀도로 압축되면 고온, 고압의 용광로가 되어 온도가 1천만 도에 이르면 핵융합 반응을 일으키며 빛을냅니다. 바로 별의 탄생이죠. 이때 여러 개의 별이 한꺼번에 만들어지는 것을 성단이라고 합니다. 새로 태어난 별의 팽창 에너지와 중력에 의한 수축 에너지가 균형을 이루면 별은 오랫동안 안정된 별로 자리잡고 수소와 헬륨을 차례로 핵융합시키며 나이를 먹어갑니다. 별은 질량에 따라 수명이 결정되는데 태양은 100억 년 정도 존재할 거라고 합니다. 수명을 다한 별은 크기에 따라 부풀어 올라 다시 성운으로 돌아가기도, 초신성 폭발로 블랙홀을 만들기도 한답니다.

## 피타고라스가 만든 별

우리가 흔히 그리는 별 모양은 어디서부터 시작되었을까요? 누군가가 반씩반씩 빛나는 모습에서 따온 걸까요? 네이버 TV 캐스트에서 이에 대한 재미있는 영상을 볼 수 있었는데요, 별을 ☆ 모양으로 사용하자고 제안한 것은 그리스의 고대 수학자 피타고라스였답니다. 밤하늘의 별 보기를 즐겼던 그는 우주가 가장 아름답고 조화로운 곳이라고 생각했지요. 우주를 조화란 뜻의 코스모스라고 부른 이도 그였습니다. 그는 우주에서 가장 완벽하고 아름다운 모양을 연구했는데, 신을 1로, 남자와 여자를 2와 3으로, 그리고 그 합인 사랑과 결혼을 5로 하여 오각형을 가장 완벽하고 안정된 모양이라고 생각했고 이 오각형의 꼭지점들을 이음으로써 별 모양이 탄생하게 되었다네요. 놀라운 것은 이 별에서 1:1,618의 황금비율 법칙을 찾을 수 있다는 겁니다. 지구의 황금비율로 만들어낸 별 모양이라니, 더욱 아름답게 여겨지네요!

## 별똥별

흐르는 별, 즉 유성이라고도 하는 별똥별은 우주공간을 떠돌다가 지구의 대기권에 빠른 속도로 돌진하며 순식간에 타오르는 먼지 입자의 흔적입니다. 별똥별을 보고 소원을 빌면 이루어진다고 하는데요, 그려려면 하늘을 보며 별똥별이 지나갈 때까지 소원을 되뇌이고 있어야 할 겁니다. 길어야 2초만에 사라지기 때문이죠. 어떤 별똥별은 탄다남으면 운석을 남기는데 놀랍게도 이런 운석이 매일 평균 100톤, 1년에 4만 톤씩 지구에 떨어집니다. 지구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바다에 주로 떨어지기 때문에 흔히 별똥별 운석이라고 부릅니다. 경남 진주에서 34kg에 달하는 운석이 발견되어 화제가 되었습니다. 정부는 45억 살인 이 운석의 가격을 3억 5천만 원으로 책정했습니다. 그런데 운 나쁘면 인간이 남긴 우주 쓰레기가 별똥별로 떨어지기도 합니다. 인간이 인공위성을 쏘며 만든 우주 쓰레기는 무려 60만 개, 총 6,000톤이 넘는다고 하니까요.

## 어린왕자의 B612

하루에 마흔 세 번이나 해 지는 걸 볼 수 있는 별. 두 개의 활화산과 하나의 휴화산이 있는 별. 작은 꽃들과 바오밥 나무의 씨앗이 자라는 별. 그리고 어린 왕자와 그가 사랑하는 장미가 있는 별 B612는 실제 하는 별 이름일까요? 소설에서는 터키의 어느 천문학자가 1909년에 발견한 별이라고 했는데요, 사실 그 당시 발견된 소행성 중 그런 이름을 한 것은 없답니다. B612의 위치를 과학적으로 찾아보자면 대부분의 소행성이 몰려 있는 화성과 목성 궤도 사이의 소행성대가 가장 그럴 듯한 장소입니다. 여기엔 크고 작은 소행성들이 흩어져 있습니다. 어린왕자가 충분히 석양을 볼 수 있을만큼 작은 소행성들도 많고요. 장미를 돌보러 돌아간 어린왕자는 잘 지내고 있을까요? 새끼 양은 장미와 사이좋게 지낼 수 있을까요? 사막이 이를다운 건 어딘가 우물이 있기 때문이라던 그의 말처럼, B612가 어딘가 떠 있기에 밤하늘은 더 아름다운 것 같습니다.





05

**천상열차분야지도**

현재의 별자리는 서양 별자리 체계가 국제적으로 널리 사용되고 있지만, 우리나라에도 고유의 별자리가 있다는 것, 아시나요? 우리의 별자리는 세계에서 두 번째로 오래된 천문도 '천상열차분야지도'에서 선명히 볼 수 있습니다. 태조 이성계 시대(1395년)에 고구려 성좌도 탁본을 바탕으로 돌에 새긴 것인데 서양의 별자리 수인 88개보다 3배 이상 많은 293개의 별자리와 은하수가 그려져 있으며 각 방향을 대표하는 12지 등을 섬세히 표시했습니다. 이 천상열차분야지도는 사실 지갑 안에서도 볼 수 있어요. 2007년에 발행된 새 만원권 지폐 뒷면을 보시면 혼천의와 한국천문연구원 보현산 천문대 1.8m 광학망원경이 그려져 있죠. 그 뒤 배경이 바로 천상열차분야지도의 탁본이랍니다. 신라시대에 별을 관측하던 첨성대도 잊어선 안되겠죠? 천문대는 현존하는 관측대 중 동양에서 가장 오래된 관측대로 남아 있습니다.



06

**별에게 비틀즈를**

미항공우주국, 즉 나사(National Aeronautics and Space Administration)는 창립 50주년을 맞이한 2008년 2월 4일, 비틀즈의 <우주를 넘어서(Across the Universe)>를 작은곰자리의 북극성을 향해 쏘아 보냈습니다. 거대한 안테나 3대를 동원해 발신한 노래는 초속 30만 km의 속도로 날아가고 있으니 약 400년 후에도 착하리란 예상입니다. 2월 4일은 이 노래의 녹음일로부터 40주년이 된 날이기도 했는데요, 이에 대해 폴 매카트니는 “다른 별 사람에게 안부를 전해 주길”, 존 레논의 부인인 오노 요코는 “수십 억의 별과 교신하는 새로운 시대의 시작을 느낀다”고 했답니다. 이에 앞서 1974년에는 푸에르토리코의 아레시보 전파 천문대에서 2만 5천 광년 떨어진 M13 구상성단으로 메시지를 보내기도 했습니다. 여기엔 1부터 10까지의 숫자, 사람의 키, 인구 수, 태양계 등을 담았지요. 북극성에 음악이 도착하는 400년 후, 북극성의 누군가가 그 노래를 들어줄까요? 5만 년 뒤 지구는 어떤 별이 되어 있을까요?



07

**하늘의 주소, 별자리**

밤하늘에 수없이 박혀 있는 아름다운 별들! 그러나 도시에서는 광공해 때문에 몇 개 찾을 수 없지요. 그럴 땐 앱이 안 보이는 별도 찾아 줍니다. 구글 별지도는 GPS를 기반으로 스마트폰의 위치를 파악, 방위와 실제 위치에 있는 별 이름, 태양계 행성까지 보여 주고요, 원하는 시간을 선택하면 그 시간의 별의 위치도 볼 수 있지요. Star walk 2와 별자리표 앱은 별자리를 아름다운 그림으로 보여 주어 아이들에게 별자리를 설명할 때 유용합니다. 별을 더 가까이서 보고 싶다면 나사 홈페이지([www.nasa.gov](http://www.nasa.gov))나 한국천문연구원의 홈페이지([www.kasi.re.kr](http://www.kasi.re.kr))를 이용해 보세요. 오늘의 우주 사진, 이달의 사진 등 다양한 천체 사진이 공개되어 있습니다. 헤븐즈어보브([www.heavens-above.com](http://www.heavens-above.com))에 들어가면 국제우주정거장(ISS)의 현 위치를 입체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집안으로 별을 끌어들이고 싶다면 별 조명이나 가정용 플라네타리움은 어떨까요? 어둠 속에서 전원을 켜는 순간, 방 안이 별천지가 된답니다.



08

**별들의 전쟁, 스타워즈**

<스타워즈 에피소드 7>이 얼마 전 개봉하며 큰 화제를 모았죠. <스타워즈> 시리즈는 1977년 <스타워즈 에피소드 4 – 새로운 희망>으로 처음 개봉하여 거의 40년간 그 인기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스타워즈 이야기를 직접 쓰고 감독하며 이후 제작까지 지휘해 온 조지 루카스은 “현대의 동화를 만들고 싶다. 우리에게는 한때의 서부극이 그려졌듯 신화가 필요하다”며 작품의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이전까지 SF영화는 B급으로 분류되었지만 그는 <스타워즈>에 장대한 서사 속에 선과 악의 대립이라는 단순성을 유지하며 화려한 볼거리를 불어넣어 어른들은 물론, 어린이들에게까지 열광적인 지지를 모았고 SF 영화의 작품성을 끌어올렸습니다. 어린이일 때 본 영화를 어른이 된 후에까지 이어서 본다는 것은 큰 매력임에 분명합니다. 시리즈 7 이후에도 9까지의 계획이 잡혀 있다니 앞으로의 영화도 기대가 됩니다.





## 당신의 별을 읽어드립니다

**별자리 스토리텔러 사마리아**

수백년 동안 점성학은 천문학과 함께 발달해 왔습니다. 히포크라테스는 점성술을 바탕으로 의술체계를 만들어 중세까지 유럽에 큰 영향을 미쳤고, 행성의 운동과 궤도 모양에 대한 법칙을 발견한 천문학자 요하네스 케플러는 별점을 잘 치는 걸로도 유명했죠. 과학의 발달로 천문학의 비중이 높아지며 점성학은 그 신비의 힘을 많이 잃었지만 여전히 우리는 자신의 별자리가 무엇인지를 알며, 별자리 운세가 눈에 띄면 흥미롭게 읽곤 합니다. 알 수 없는 미래를 어떻게 추측해 내려는 것은 인간의 본능이고, 추측의 근거인 규칙은 하늘에서 시작되었으니까요.

Special Theme  
>  
별을  
향하다



### 별자리 속 보물찾기

“플라톤은 『티마이오스』에서 ‘살아가면서 삶과 죽음에 관련한 문제가 발생했을 때 사람들은 제일 먼저 하늘의 별들을 바라보았다’라고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별들을 바라보는 것이 나의 영혼을 바라보는 것이다’라고 말했죠. 알지 못하는 내일과 외부 세계에 대한 두려움에서 비롯된 것이 ‘점’이라면 ‘학’은 내가 살아온 과거에 대한 이해입니다. 그 두 가지를 이어주는 것이 바로 ‘성’. 별이고 점성학이죠.” 사마리아 씨의 점성학에 대한 설명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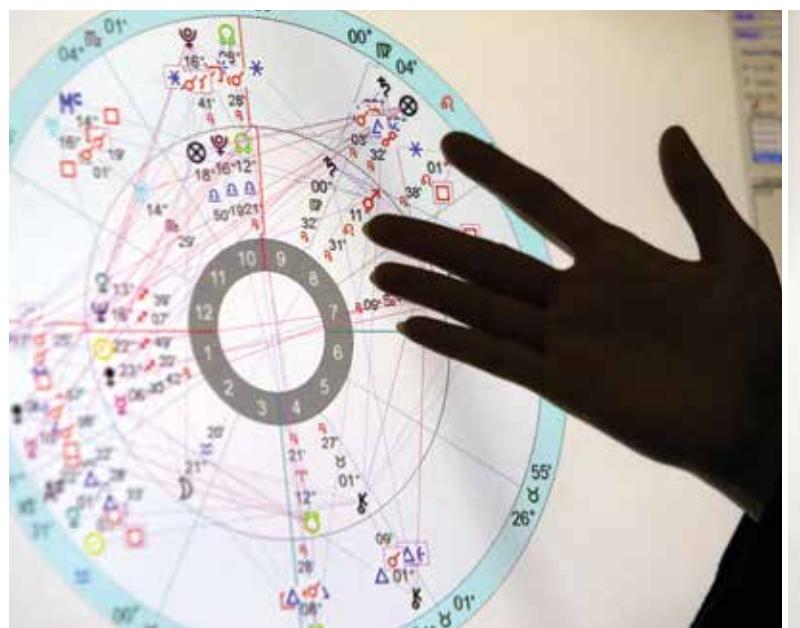
사마리아 씨는 지금까지 1만 명의 별을 읽어준 것으로 유명한 자칭 별자리 스토리텔러이자 별자리 상담가입니다. 우연히 독일에서 온 점성술사에게 들은 자신의 별점에 불신을 품어 ‘정

말 그럴까’라는 의문으로 공부를 시작하게 되었고, 실제로 겪어봐야겠다는 생각에 무려 10년 동안 미용실의 메이크업 아티스트, 부잣집의 베이비시터, 박물관의 도슨트, 서울역의 청소 노동자 등 여러 직업을 거치며 대학생부터 노숙자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이들의 별자리를 확인하고, 상담했습니다.

“너무 놀라웠어요. 사람의 이성으로 설명할 수 없는 운명이 있더라고요.” 하지만 그녀는 그 운명을 성급히 단정하고 획일적으로 제시하는 것을 경계합니다. 본인을 ‘별자리 스토리텔러’라 칭하는 것도 그 때문입니다.

“운명에는 정답이 없어요. 그 이상의 가치가 있을 뿐이지요.” 그녀가 읽어주는 별자리는 보물지도에서 꼭 찾아내야 할 보물은 운명이 아니라 인생이라는 가치입니다.





### 점성학, 하늘을 펼치다

“자, 이것이 당신의 하늘입니다.” 사마리아 씨는 생년월일시를 컴퓨터에 입력한 후 모니터를 보여주었습니다. 12개로 구획지어진 원 안에는 많은 선들이 교차하고 행성과 별자리의 상징기호들이 박혀 있습니다. 까마눈이 글을 보듯, 알 수 없는 도형들이었지만 태어나던 날의 하늘이 이러했다니 이유 불문하고 아름다워 보이더군요. 마치 도상학을 하듯 사마리아 씨는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지금 이 별의 위치가 중요해요. 스스로 새로운 일을 만들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흔히 상상하는 ‘올해는 이동수가 있어’라던가, ‘그 남자는 안 돼’ 등의 단정은 없습니다. 사마리아 씨는 그 이유를 “하늘이 둥글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움직여서 둥글어 보이게 되죠. 운명 역시 나의 움직임에서 작동합니다. 그렇기에 어디로 움직이는지를 펼쳐 봅니다. 이 하늘에 있는 많은 별들처럼 원 안엔 수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자신은 연애 문제에만 골몰해 있었는데 저와 상담을 하면서 그것이 사실은 진로 문제에서 불거졌다는 것을 깨닫기도 합니다. 점성학은 원인을 알 수 없는 마음의 고통을 짚어낼 때 훌륭한 대화의 도구가 되어 주죠.”

### 시작을 돋는 마음 공부

미래를 규정하기보다는 다른 관점을 제시하는 사마리아 씨의 상담 스타일에 내담자들도 색다른 반응을 보입니다. “보통 상담 받고 6개월에서 1년 후에 카톡이나 문자가 와요. ‘쪽집게 세요!’하고 오는 게 아니라, ‘제 생각대로 하니까 되네요’하고요. 결국 별자리 상담을 통해 자기 생각에 확신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저서 『사마리아의 아주 특별한 별자리 상담소』에 그는 ‘다른 무엇으로도 말고, 오직 자기 자신을 등불로 삼기를’이라는 석가모니의 유언을 옮겨 넣었습니다. 또한 점성학을 ‘개인의 시작을 돋는 마음 공부’라 표현했지요. 시작을 돋고 그 다음으로 옮겨 가는 것을 돋는다고요. 그 과정이 힘들 땐 별이 위로 가 되어 줄 겁니다. 광대한 우주 속에서 계속하여 빛나고 있는 별들이요.



## CULTURE GALLERY

겨울의 끝자락은  
다시 한해를 계획하게 합니다.  
올해, 새로운 일과 함께  
즐거운 날들도 꿈꿔 보세요.  
특별한 저녁을 준비하고  
새로운 감동을 만나보는 건 어떨까요.



## 특별한 날, 우리만의 테이블

영화나 드라마에서 주인공들은 특별한 날, 레스토랑을 예약한다. 말쑥하게 차려입고 꽃이나 반지를 준비하여 설레는 식사를 하고 떨리는 목소리로 준비한 말을 깨낸다. 이때 레스토랑은 한 끼 식사를 위한 것만이 아니라 추억을 새기는 장소가 된다. 어떤 레스토랑들은 이를 위한 공간과 시간, 맛을 제공하기 위해 테이블을 하나만 두기도 한다. 셰프의 실력을 올곧게 전달하기 위해 하루 한팀에게 만 테이블을 허용하는 레스토랑도 있다. 일년에 한 번쯤 특별한 날, 특별한 맛을 만나고 싶다면 원 테이블 레스토랑을 미리 예약해 보자.



인뉴욕

## 인뉴욕

2004년 국내 최초의 원테이블 레스토랑으로 문을 연 인뉴욕은 강남 도산공원의 호젓한 골목에 위치해 있다. 10년의 세월 동안 원테이블의 특색을 지켜온 만큼, 지금은 프로포즈를 위해 오는 손님은 물론, 이곳에서 프로포즈에 성공해 결혼기념일마다 오는 손님이 있는가 하면 아 이를 동반하기도 한다. 그야말로 한 가족의 탄생과 역사를 함께해온 셈이다. 주방이 오픈되어 있어 요리과정을 생생히 느낄 수 있는 것도 인뉴욕의 장점이다. 인뉴욕의 강연대 셰프 역시 손님의 취향에 더 섬세히 집중하며 정성껏 요리하게 되어 행복함을 느낀다고. 마지막 디저트 코스에서는 '진짜 손님만을' 위한 시간을 위해 셰프마저 자리를 비켜주는 세심한 배려가 인상적이다. \_ (02) 541-1373



(위) 린네 (아래) 이수부

## 린네

교외에서의 식사는 흔히 백숙과 탕을 내세운 '가든'을 떠올리게 한다. 린네는 그런 고정관념을 깬 양평의 원테이블 레스토랑으로, 정확히는 테이블이 여러 개이지만, 메뉴와 인원수에 따라 오롯이 한 팀이 이용하기도, 여러 손님이 공유하기도 하는 '양평에서 가장 작은 레스토랑'이다. 전원주택에서 살면서 찾아오는 지인들에게 요리 대접하기를 즐겨하던 부부의 손맛이 소문이 나서 레스토랑을 오픈한 이곳은 여름이면 마당의 연못과 풀장이 어린 손님들에게 즐거운 시간을 만들어 준다. 어린아이가 있는 가족이라면 나들이 겸 들르기 부담없는 레스토랑이다. \_ (031) 774-1525

## 이수부

'하루 한 팀을 위한, 건강한 요리'를 표방하는 이수부는 셰프 자신의 이름을 건 레스토랑으로, 오로지 저녁 시간에 한 팀만을 위해 요리가 준비된다. 따로 정해진 메뉴판 없이 날마다 가장 신선한 제철재료로 메뉴를 구성하기 때문에 색다른 식도락을 즐길 수 있다. 소금과 후추 외의 다른 감미료를 배제하며 재료 자체의 맛을 살리는 '미니멀리스트 키친'답게 서비스와 영업도 최소화했는데도 미식가들의 입소문에 의해 알려졌다. 이수부 역시 오픈 주방으로, 4명 이상의 인원부터 예약이 가능하고 식당 전체가 주방과 어우러지는 분위기이기에 커플의 이벤트보다는 편안한 분위기에서 요리와 맛 자체에 집중하고자 하는 모임에 추천한다. 서울 도곡동에 위치해 있다. \_ (02) 572-0570



## 아는 만큼 줄어든다 우리집 통신비 절약 노하우

정들었던 3G 휴대폰과 이별하고 최근 최신형 LTE 휴대폰으로 갈아탄 김 대리. 단말기 가격을 할부로 나누고 나름 저렴한 요금제를 선택해 요금 부담을 줄이기로 마음먹었지만 김 대리의 예상은 한 달 후 날아온 고지서에 보기 좋게 깨지고 말았다. 단말기 할부금액이 데이터요금제와 합쳐져 이전보다 두 배에 가까운 요금폭탄을 맞은 것. 향후 2년의 약정기간 동안 만만치 않은 요금을 지불해야 할 김 대리를 위해 다양한 통신비 절약 노하우를 알아봤다.

글·이경숙  
참고·T월드([www.tworld.co.kr](http://www.tworld.co.kr)), 올레 KT([www.olleh.com](http://www.olleh.com)), LG 유플러스([www.uplus.co.kr](http://www.uplus.co.kr))

### 휴대폰 사용패턴을 정확히 파악하라

통신비를 절약하는 가장 쉬운 방법은 자신에게 맞는 요금제를 찾는 것. 요금제를 변경하려면 가장 먼저 자신의 통신 사용패턴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통신요금 청구서를 통해 최근 3개월 동안의 음성통화량, 데이터 사용량, 문자 이용건수 등을 살펴보면 나의 사용패턴을 파악할 수 있다. 그런 다음 적절한 요금제를 선택하면 되는데, 각 통신사 홈페이지뿐만 아니라 이동통신 3사와 한국통신사업자협회(KTOA)가 운영하는 통신요금 정보 포털 사이트 '스마트초이스([www.smartchoice.or.kr](http://www.smartchoice.or.kr))'를 활용하면 손쉽게 추천 요금제를 찾을 수 있다.

스마트초이스에 자신의 음성/데이터/문자 사용량, 약정기간 등을 입력하면 이용패턴이나 실제 사용량을 기반으로 통신사별로 가장 저렴한 요금제, 사용해볼 만한 요금제 등을 상세히 추천해 준다. 예를 들어 월 평균 음성통화 500분, 데이터 3G, 문자 100건을 사용하는 경우(단말기 가격 미반영) SK 텔레콤은 'band 데이터 47', KT는 'LTE 안심데이터 350', LG 유플러스는 'New 음성무한 데이터 46.9' 요금제를 각각 추천해 주는 식이다. 또한 기본료/월정액/사용량을 조금 더 조절해 요금을 절약하거나 여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팁도 함께 제공한다.

### 포커스에 맞춰 유리한 요금제 선택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휴대폰을 개통할 때 처음 가입했던 요금제를 계속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 요금제를 변경할 경우 동일한 조건일지라도 자신의 사용패턴에 따라 음성통화와 데이터 사용 중 어디에 포커스를 둘지를 정해야 한다. 최근에는 스마트폰 사용자가 많아져 각 통신사별로 음성통화보다 데이터 사용량에 중점을 둔 요금제가 더 각광을 받고 있다. 음성과 문자는 무제한으로 제공하고 데이터 사용량에 따라 요금제를 결정하는 식이다. 단, 평소 데이터 사용량이 적거나 데이터를 선물받을 수 있는 경우 오히려 손해일 수 있으니 꼼꼼히 따져볼 것.

음성통화가 많거나 Wifi 사용이 용이한 경우는 데이터 중심의 요금제를 활용하면 통신비를 확 줄일 수 있다. 예를 들어 SKT에서 월정액 51,500원(24개월 약정 시, 음성/문자 무제한, 데이터 5GB)의 '전국민 무한69 요금제' 사용자가 월 데이터를 3GB 미만으로 사용할 경우 월정액 47,000원의 'band 데이터 47(음성/문자 무제한, 데이터 3.5GB)'를 선택하면 월 4,500원을 절약할 수 있다.

### 대표 데이터 중심 요금제

	SKT band 데이터	KT 데이터 선택	LG 유플러스 New음성무한 데이터
음성/문자	무제한	무제한	무제한
데이터	300MB~35GB	300MB~30GB+무한	300MB~11GB+무제한
월정액	29,900~100,000원	29,900~99,900원	29,900~59,900원
기타	요금인상 비대상, Btv 모바일, 최신 컨텐츠 제공	약정할인 없음, 밀당 서비스 가능, 올레 tv 모바일 제공	약정할인 없음, 비디오 전용 데이터 (300MB~3.3GB) 별도 제공, LTE비디오 포털 제공

\* 부가세 별도



### 휴대폰 '20% 요금할인'에 대해 아시나요?

통상적으로 약정기간 동안 단말기 기기값을 할인해 주는 지원금(공시지원금)은 요금제에 따라 할인율이 달라져 저가의 요금제를 선택하는 경우 그 혜택이 줄어든다. 단말기 유통법에 의해 도입된 '20% 요금할인'은 단말기를 구입할 때 제공되는 공시지원금 대신 소비자가 선택한 요금제에서 20% 할인을 받을 수 있는 제도로, 단말기 가격 할인 대신 그에 상응하는 요금을 절약할 수 있다. 단, 통신사와 단말기, 요금제에 따라 할인율이 달라지는 만큼 꼼꼼히 비교 후 선택하는 것이 좋다. '20% 요금할인'은 신규 개통을 하거나 국내 또는 해외에서 직접 신규단말기를 구입한 경우, 약정기간이 만료된 단말기나 출시 24개월이 지난 중고단말 기를 쓰는 경우 신청할 수 있으며, 자신의 휴대폰이 20% 요금할인 대상인지는 '이동전화 단말기 자금제' 홈페이지([www.danmalgi.or.kr](http://www.danmalgi.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Tip.

## 전시, 색과 빛을 엿보다

NOROO가 매해 개최하는 <노루 인터내셔널 컬러 트렌드 쇼>에 쓰리는 관심에서 우리는 컬러의 중요성과 그 영향력을 확인한다. 미술의 영역에서 컬러가 차지하는 역할을 확인하는 전시가 최근 눈에 띄는 것도 그 힘을 증명하는 것일 것이다. 컬러의 이면, 즉 컬러를 만들어내는 빛의 신기한 기능을 이용한 전시들도 화려한 영상으로 인기를 끌고 있다. 전시장에서 엿볼 수 있는 색과 빛의 작품들, 무엇이 있을까?



## Color Your Life – 색, 다른 공간 이야기

대림 미술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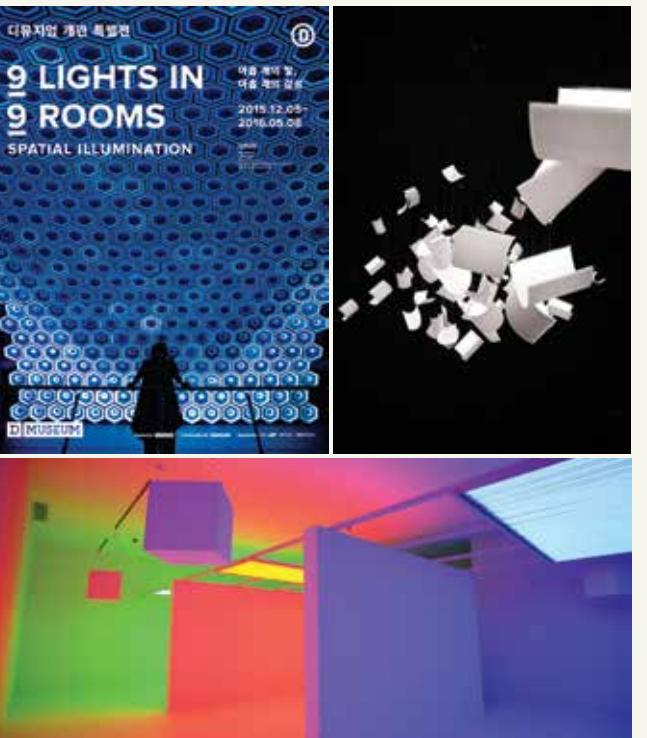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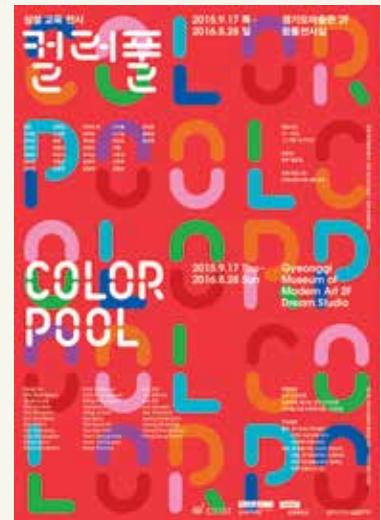
대림미술관은 2월 25일부터 7월 31일까지 <Color Your Life – 색, 다른 공간 이야기>전을 연다. 매해 발표되는 컬러 트렌드가 다양한 산업 영역에서 활용되고 소비자들 역시 색을 개성 표현의 수단으로 적극 활용하며 DIY인테리어를 즐기는 흐름을 따라 이 전시를 기획한 대림미술관은 색이 일상을 특별하게 바꿔내는 과정들을 선보인다.

전시는 층별로 구성을 다르게 하여 여러 각도로 색을 보게 한다. 2층 전시장에서는 색이 주제인 사진 작품들로 시작하여, 유리, 가죽, 나무 등에 따라 변하는 색의 질감을 경험할 수 있다. 3층에서는 세계적인 현대 가구 디자이너들이 독창적인 방식으로 색을 발전시키는 과정을 살펴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4층에서는 친환경 페인트 뉴렉스(Dulux)와 협업하여 색다르게 해석한 침실, 주방, 거실 등의 컬러 공간을 디자인 거장의 마스터 피스 가구와 함께 연출했다.

## COLOR-POOL 컬러풀

경기도 미술관

경기도미술관은 미술의 기본 요소 중 색을 주제로 미술관 소장품 40여 점을 새롭게 해석하여 컬러에 풍덩 빠져들게 하는 <컬러풀>전을 열고 있다. 관람자는 무채색, 분홍색, 파랑색, 초록색, 빨강색, 노랑색, 훈합색의 7가지로 구성된 색채군을 따라가며 공통된 색을 사용하는 여러 작품을 한 자리에서 감상하고 하나의 색이 만들어내는 다양한 감정과 의미를 시각적으로 경험할 수 있다. 경기도미술관의 소장품 이외에도 고낙범의 벽화 신작과 윤정원의 화려한 상들리에가 어우러져 ‘컬러풀’한 볼거리가 펼쳐지며, 전시실 내부에 마련된 꿈틀교실에서는 작품과 전시 내용의 이해를 돋는 교육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보이지 않는 대상의 색을 상상하며 그리고, 가족 구성원의 성격에 맞는 색을 찾아 표현해 보는 등 유아부터 성인까지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은 미리 예약하고 가 보자. 전시는 지난해부터 시작되어 올해 8월 27일까지 열린다.



## 아홉 개의 빛, 아홉 개의 감성

디뮤지엄

대림미술관이 새로운 문화 아지트로 서울 한남동에 지난 12월 개관한 디뮤지엄은 개관특별전으로 오는 5월 8일까지 세계적인 아티스트들의 라이트 아트(Light Art) 작품을 선보인다. <Spatial Illumination – 9 Lights in 9 Rooms>라는 제목의 이 전시에서는 9개의 방에 설치, 조각, 영상 등을 각각 설치, 관람객들은 방에서 방으로 안내를 받아가며 독립된 공간 속 한 작품을 온전히 즐기게 된다.

백색광의 네온이 밀하는 순수함, 광섬유가 발하는 빛 출기의 원기둥, RGB(빨강, 초록, 파랑)의 빛이 섞이며 색이 변하는 벽면과 조형물들은 시각적 아름다움과 환상을 주며 수백개의 육각형 타일들로 이루어진 공간에서 빛의 패턴과 사운드가 연출되는 작품은 심해를 유영하는 듯 공감각적인 경험을 제공한다. 9개의 공간을 통과하는 동안, 관객은 향상처럼 부서져 내리는 빛의 숲 속을 걷고, 일렁이는 빛의 물결에 몸을 실어보거나, 빛의 흘날리는 바람을 느끼는 등 새로운 차원의 공간 경험으로 초대된다. 9개의 스펙트럼을 통과한 빛을 온몸으로 경험하는 이번 전시, 놓치지 말자.

## 반고흐 인사이드 : 빛과 음악의 축제

문화역서울284

최근 액자로 둘러싼 원화가 아닌 디지털화한 작품을 프로젝터로 전시하는 미디어아트 전시가 많아지고, 인기 또한 끌고 있다. 이러한 전시는 국내에서는 쉽게 접하지 못하는 유명 작가의 원화들을 커다란 크기로 다양하게 볼 수 있다는 것과 동영상 효과를 입혀 어린이들에게 호기심을 불러일으키고 관람의 색다른 즐거움을 준다는 장점들이 있다. 인기를 고려한 탓인지, ‘빛’으로 쏘이 보여 주는 전시 형태의 특징 때문인지 이러한 미디어아트 전시는 빛과 색을 새로이 발견해 낸 인상주의 화가들이 자주 그 주제가 된다. 최근 열리고 있는 <모네 빛을 그리다> 전과 4월 17일까지 열리는 <반 고흐 인사이드 : 빛과 음악의 축제>도 그려하다. 옛 서울역을 이용한 문화역서울284 전시장의 독특한 내부를 그대로 캔버스로 활용하여 반 고흐와 후기 인상파 화가의 작품 400여 점이 보여지는 이번 전시는 고흐의 감정선과 내면 세계 작품 분위기에 따라 임팩트 있는 동영상과 음악 효과를 부여, 관객의 이해와 공감을 이끌어낸다.





“

하나의 이야기에서 시작해 영화와 애니메이션, 캐릭터 상품과 장난감, 출판 등 다양한 문화 상품이 만들어지는 것을 ‘원소스 멀티유즈’라고 한다. 과거, 해리포터와 아바타 등 문화 상품의 가치창출을 예로 들며 캐릭터 사업을 수출전략으로 밀었던 정책들도 있었으나, 진정한 원소스 멀티유즈는 정책이 아닌 대중의 관심으로부터 나온다. 사라진 만화잡지 대신 각종 웹툰의 연재처가 되어 대중들의 인기를 클릭 수로 끌어들인 포털 사이트와 그곳의 웹툰들은 원소스 멀티유즈의 원천, 이야기의 시작이 되고 있다.

”

### 화려하게 영화로

2015년에 영화로 개봉한 웹툰으로는 〈내부자들〉(윤태호/한겨레 오피니언 혹은 연재)과 〈타이밍〉(강풀/다음 연재)을 들 수 있다. 이미 〈이웃사람〉, 〈26년〉, 〈바보〉 등 많은 작품을 영화화시킨 강풀 작가의 이번 〈타이밍〉은 애니메이션으로 만들 어졌다는 데에 큰 의의가 있다. 정재계의 부정, 뒷거래들을 다뤄 쓰디쓴 뒷맛을 남기는 〈내부자들〉의 경우, 감독관 외전이 다시 선을 보이면서 흥행을 이끌었다. 아쉽게도 웹툰은 갑자기 연재가 중단되었지만 작가는 다시 이어갈 계획이 없음을 밝혀 그 속내가 궁금하기도 하다. 웹툰을 원작으로 한 것은 아니나, 강동원의 미모로 화제를 모은 〈검은 사제들〉은 역으로 스페셜 웹툰을 따로 제작해 개봉 즈음하여 공개하기도 했다. 그렇다면 앞으로는 어떤 웹툰들을 영화로 만날 수 있을까? 주호민 작가의 〈신과 함께〉는 배우 하정우, 주지훈, 차태현, 마동석 등의 화려한 출연진으로 올해 크랭크인하여 2부작으로 제작, 2017년부터 순차적으로 개봉한다. 〈신과 함께〉는 저승세계에 대한 우리 신화를 배경으로 억울하게 죽은 이들과 저승차사들의 이야기를 담았다. 현재도 네이버 웹툰을 통해 볼 수 있다.

### 잔잔하게 드라마로

웹툰의 드라마화라고 하면 누구나 〈미생〉을 자연스럽게 떠올릴 것이다. 미생도 이젠 2년 전인 2014년의 드라마가 되었고, 이후로도 많은 웹툰들이 드라마로 안방을 찾아들었다. 지성에게 MBC 연기대상을 안긴 〈킬미힐미〉와의 대결에서 패했던 〈하이드 지킬, 나〉는 〈지킬박사는 하이드 씨〉(이충호/다음 연재)를 원작으로 했었고, 〈냄새를 보는 소녀〉(만취 원

작/올레 연재), 〈밤을 걷는 선비〉(조주희, 한승희 원작/카카오페이지 연재), 〈송곳〉(최규석 원작/네이버 연재) 등이 공중파와 종편, 케이블 등 다양해진 채널을 통해 시청자에게 선을 보였다.

2016년에는 〈치즈 인 더 트랩〉(순끼 원작/네이버 연재)을 시작으로 3월에는 배우 박신양의 드라마 복귀작 〈동네변호사 조들호〉(해출링 원작/네이버 연재)가 방영될 예정이다. 특히 네이버에서 지난해 1000회차 연재를 기록한 개그만화, 조석 작가의 〈마음의 소리〉가 시트콤으로 제작된다는 반가운 소식도 들려온다.

### 생생한 연극과 뮤지컬로

연극계에서는 2005년, 강풀의 〈순정만화〉(다음 연재)를 시작으로 웹툰을 무대에 올리기 시작, 이후로도 강풀의 〈바보〉(다음 연재)와 〈그대를 사랑합니다〉(다음 연재), 남지은과 김인호의 〈우연일까〉 등이 공연되었다. 웹툰 1세대로 꿈히는 강도하 작가의 〈위대한 캣츠비〉는 2007년, tvN에서 드라마로 만들어진 이후, 뮤지컬로도 선보여졌다. 고단한 현실 속을 살아가는 청춘의 ‘지독한 순정’을 그린 이 뮤지컬은 최근 〈위대한 캣츠비 RE:BOOT〉로 다시 막을 열기도 했다. 주호민의 〈신과 함께〉, 〈무한동력〉(네이버 연재) 역시 뮤지컬로도 들어진 바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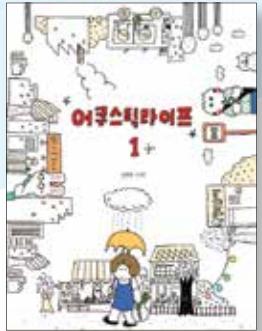
2016년에는 과거 김수현의 연기로 인기를 모았던 웹툰 소재의 영화 〈온밀하게 위대하게〉가 뮤지컬로 등장할 예정이다. 뮤지컬은 화려한 아이돌 출신의 배우들을 눈앞에서 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다양한 소재의 웹툰, 다양한 장르에서 새로운 재미를 발견해 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

## 취향껏 클릭 & 스크롤

네이버, 다음 등 포털 사이트 외에도 KT 올레마켓(webtoon.olleh.com), 만화 전문 채널 레진코믹스(www.lezhin.com)까지, 웹툰을 볼 수 있는 청구는 많고, 셀 수 없이 많은 웹툰들이 독자를 반긴다. 그중, 몇 가지를 골라 추천한다. 한번 클릭하면 스크롤이 멈추지 않을 테니, 충분한 시간 여유가 있을 때 열어 보길 권한다.

### 시시콜콜한 오늘의 이야기 〈어쿠스틱 라이프〉, 〈혼자를 기르는 법〉

작가 자신의 소소한 일상을 옮긴 일상툰, 생활만화는 웹툰에서 가장 인기를 끄는 주제다. 다음에 연재된 난다의 〈어쿠스틱 라이프〉를 그 대표적으로 추천한다. 〈어쿠스틱 라이프〉는 2010년부터 연재를 시작하여 부부의 일상으로부터 육아에 이르는 인생 이야기를 깨끗한 유머와 부드러운 감성으로 녹여냈다. 현재는 휴재 중이다. 역시 다음에 연재를 시작한 김정연 작가의 〈혼자를 기르는 법〉은 도시의 싱글족에게 서늘한 짐표 같은 웹툰으로, 둥글고 옛스러운 그림체와 독백이 묘한 여운을 남긴다.



### 밤에 보면 위험! 먹는 웹툰 〈밥 먹고 갈래요?〉 〈술꾼도시처녀들〉

먹방, 쿡방이 대세인 요즘, 웹툰도 그와 무관하지 않다. 어찌면 훨씬 먼저 식도락의 즐거움을 전한 것이 만화일 것이다. 네이버에 연재하는 오묘 작가의 〈밥 먹고 갈래요?〉는 도시의 일상에 곁들여지는 집밥의 즐거움을 귀여운 그림체와 간단한 레시피로 담았다. 다음 연재작, 미강 작가의 〈술꾼도시처녀들〉은 제목 그대로 술꾼인 도시 여자들의 술 마시는 이야기다. 후회를 예상하면서도 흥겹게 ‘한 병 더’를 외치는 그녀들의 이야기는 술처럼 중독성이 강하다. 술을 즐기지 않더라도 매회 소개되는 안주에 군침이 돈다.



### 우리의 역사, 그리고 사회 〈곱게 자란 자식〉, 〈조선실록〉, 〈송곳〉, 〈미생 2부〉

### 소수와 다수 사이, 우리가 있다 〈모두에게 완자가〉, 〈아만자〉, 〈나는 귀머거리다〉

이야기는 누군가를 이해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특히나 사회적으로 소수여서 미처 알 수 없었던, 편견을 가지기 쉬운 이들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다면, 우리는 조금 더 그들을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레즈비언 커플의 일상을 통해 우리와 같고 때론 다른으로서 느끼는 즐거움, 슬픔을 전하는 〈모두에게 완자가〉(완자/네이버 연재), 암환자의 고통과 고독 속으로 긴 여행을 떠나는 듯한 〈아만자〉(김보통/올레 웹툰 연재), 청각장애인의 하루하루에서 일어나는 에피소드를 그린 〈나는 귀머거리다〉(라일라/네이버 연재) 등을 통해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보자.

# N O R O O P E O P L E

2016년, 달력의 숫자가 바뀌며  
70주년에서 71주년으로  
새로운 나이태를 그려가는  
NOROO가 힘찬 걸음을 내딛습니다.  
그 변화의 하루하루 속에 당신이 있습니다.

# 컬러로 혁신하라!

## 2016년 올해의 컬러

### 2016 노루 인터내셔널 컬러 트렌드 쇼

올해로 5회를 맞은 2016 노루 인터내셔널 컬러 트렌드 쇼가 2015년 12월 10일, 동대문디자인플라자 알림터에서 열렸다. 마치 우주항공모함에 들어서는 듯한, 혹은 순백의 진공관으로 빨려들어가는 듯한 동대문디자인플라자의 공간에서 쇼를 알리는 배너들은 더욱 돋보였고, 우윳빛 곡면으로 이루어진 행사 무대에서 컬러들은 한층 생생하게 빛났다. 그야말로 색의 향연과도 같았던 이번 컬러 트렌드 쇼를 소개한다.

#### We Create Colorful Life

참가자들이 속속 모여든 행사 당일, 빈 자리 없이 꽉 찬 행사장은 노루 인터내셔널 컬러 트렌드 쇼(이하 컬러 트렌드 쇼)에 대한 관련업계의 관심과 열기를 느끼게 했다. 이윽고 행사 시작을 안내하는 사회자의 목소리가 울려 퍼지고, ‘We Create Colorful Life’라는 주제로 일상의 모든 컬러를 이야기할 것이라는 소개에 이어 깜찍한 노루 캐릭터가 화면에 등장하자 모두의 시선이 고정되었다. 애니메이션 영상은 NOROO의 역사와 각종 업적을 경쾌하게 보여주며 ‘We Cover All’이라는 문구로 강렬한 인상을 남겼다. 곧이어 단상에 오른 (주)노루페인트 김수경 사장은 “이번 행사가 컬러 전문가들의 인사이트를 공유하여 새로운 영감을 얻고, 비즈니스에 도움을 드리는 장이 되길 바랍니다. NOROO는 대한민국 디자인과 컬러 산업을 이끌어가는 여러분의 내일을 응원합니다”라는 인사로 모두발언을 겸했다. 드디어, 2016년의 컬러로 첫발을 내딛는 쇼가 시작되었다.



#### 컬러, 디자인에게 힘을 주다

“과연 디자인이란, 컬러란 무엇일까요?” ‘Color and Design Insight’라는 주제로 질문을 던진 홍익대 국제디자인 전문대학원(IDAS) 나건 원장은 이번 강연의 첫번째 주자였다. 그는 흡입력 있는 언변과 흥미로운 자료를 통해 혁신을 위해서는 조직원들의 창의력과 창의적 기법, 그것을 반芻주는 조직의 문화가 필요하다고 역설하며 오리무중 상태의 디자인에게 컬러 트렌드 쇼는 중요한 걸음이 될 것이라고 못박았다. 두번째 강연자인 CFT(Korea Color & Fashion Trend Center) 이남희 팀장은 컬러 동향에 따른 패션 산업의 전망을 각종 이미지와 동영상으로 제시하였다. 행사장에 색조 전문 코스메틱 브랜드인 VDL 부스를 통해 팬톤과의 협업을 알린 LG생활건강 또한 콜라보레이션 성공 사례를 전해 컬러의 힘을 재확인시켜 주었다.





## WE CREATE COLORFUL LIF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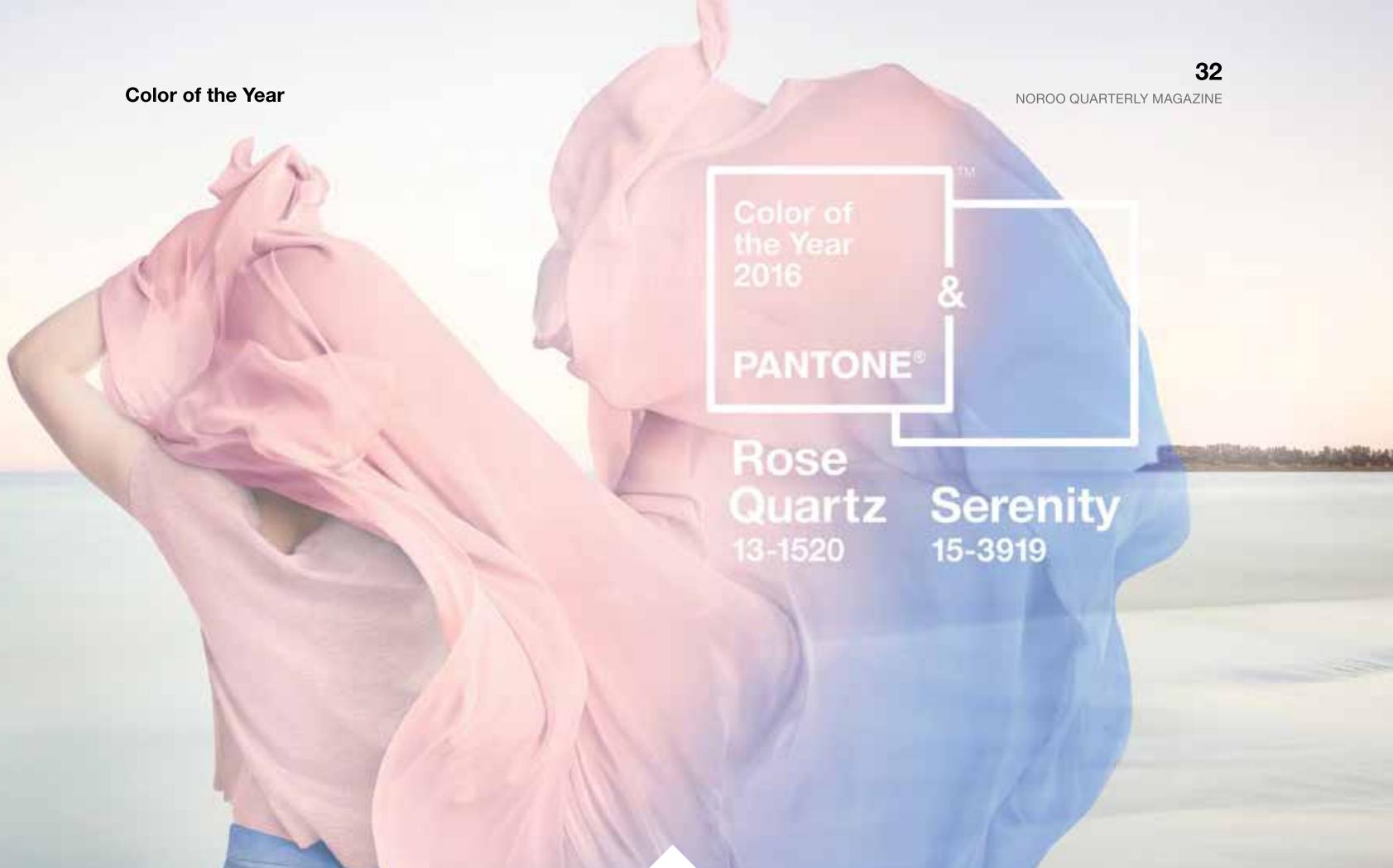
### 2016년 올해의 컬러, 로즈쿼츠&세레니티

후반부로 갈수록 행사장의 분위기는 무르익어 이제 본격적인 2016년 컬러 트렌드를 알릴 시간이다. 노루&팬톤색채연구소(NPCI)의 김승현 책임연구원은 CMF(Color, Material, Finishing)의 트렌드를 분석하고 이에 따라 2016년과 2017년에 소비자들의 감성을 자극할 컬러 48개와 이를 전략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차분히 제시했다. 전반적으로 진중한 무게가 느껴지는 이번 컬러들은 다양한 표면처리의 실제 모형으로 행사장에 전시하여 참가자들에게 그 활용도를 쉬이 짐작케 했다.

마지막 순서로 나선 팬톤색채연구소의 수석 컨설턴트, 리트리스 아이즈먼이 2015년의 컬러를 개괄하고 2016년 팬톤 올해의 컬러를 발표하는 순간, 곳곳에서 이를 담아두려는 스마트폰의 화면이 반짝거렸다. 우아하고 따스한 파스텔톤 분홍의 로즈쿼츠(Rose Quartz)와 같은 톤의 하늘색 세레니티(Serenity)가 펼쳐지는 순간이었다.

“여러 리서치 결과, 2016년에는 공감과 균형의 안정적인 컬러가 필요할 것으로 예측합니다”란 리트리스 아이즈먼의 말과 서로 겹쳐지는 두 가지 컬러는 앞서 나간 교수가 미래 컬러의 가치로 통찰한 체인징 컬러를 떠오르게 했으며 NPCI의 발표에도 일관되었던 ‘상반된 것들의 조화’와도 일맥상통하는 것이다. 모든 순서가 끝나고 자리를 일어서는 참가자들의 얼굴에는 만족감이 엿보였다. “여러분의 컬러 선택에 새로운 이니셔티브를 가지시길 바란다”는 아이즈먼의 조언은 로즈쿼츠와 세레니티만큼이나 부드러운 제안이었다. 그 제안을 품고 돌아가는 이들에 의해 2016년은 또다시 새로운 컬러들로 채워질 것이다.





2016

올해의  
컬러

# 로즈คว츠와 세레니티

팬톤사는 2016년 올해의 컬러를 선정하면서 예년과 다른 파격을 감행했다. 로즈คว츠와 세레니티, 두 가지 컬러를 택한 것이다. 아스라한 분홍과 투명함을 지닌 블루의 두 색상은 서로 상반되면서도 같은 톤으로 흰상적인 어우러짐을 낳는다. “두 가지 컬러를 통해 우리는 각각의 컬러보다 더 풍부한 느낌을 전달받는다. 균형, 공감, 열정, 평화를 느낄 수 있을 것이다”라고 리트리스 아이즈먼은 2016 노루 인터내셔널 컬러 트렌드 쇼를 통해 아시아에서 최초로 그 의미를 말했다.

## 시대, 컬러를 원하다

2016년 올해의 컬러로 선정된 로즈คว츠의 팬톤 넘버는 ‘PANTONE 13-1520 TPX Rose Quartz’, 세레니티의 넘버는 ‘PANTONE 15-3919 TPX Serenity’이다. 여기에 붙은 이름 로즈คว츠는 장미석, 세레니티는 하늘과 대기가 맑고 평온하며 고요한 상태를 말한다. 이 두 컬러는 이름 그대로 분홍의 따뜻함과 투명함을 지닌 단단한 보석, 안정된 상태의 연푸른 하늘을 떠올리게 하며 안기는 듯한 포근함과 봉 뜬 듯 가벼운 편안함을 동시에 전한다.

“컬러는 감정적 메세지를 준다”고 리트리스 아이즈먼은 트렌드 쇼에서 말했다. 팬톤이 포착한 현대 사회의 흐름, 대중의 바람에 부응해 나온 메세지는 그래서 두 가지여야 했다. 지난 2015년, 우리는 메르스 공포에 떨었으며 IS의 테러와 급증하는 난민 등 세계 정세에 불안해 했다. 국내에서는 개인의 노력만을 강조하는 현실에 ‘헬조선’이라는 말이 생겨났다. 태평양

전ne 동성결혼 합법화의 소식이 전해지고 폐미니즘이 이슈화되면서 성다양성, 성평등에 대한 각성이 촉구되었다. 이처럼 대립과 갈등, 불안과 체념, 변화와 희망이 뒤섞인 시대에 제시해야 할 컬러의 의미는 다층적이어야 할 것이다.

## 컬러, 감성으로 답하다

남성은 블루, 여성은 핑크로 규정되는 사회 속에서 로즈คว츠와 세레니티가 동등한 톤으로 서로 스미고 번지는 이미지는 성평등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또한 두 컬러는 복잡한 현실 속에서 내면이라도 평온하게 지키고 싶은 이들의 마음을 부드럽게 어루만진다. 과거의 향수에 빠진 이들에겐 빛 바랜 사진처럼 아스라한 추억의 컬러로 다가올 것이다.

리트리스 아이즈먼은 “자연에서 볼 수 있는 세레니티, 깨끗한 하늘색을 보면 마음이 고요해지고 정적인 느낌이 든다. 여기에 따뜻한 느낌의 열정과 공감의 컬러가 필요하다고 생각했으

며 그것이 로즈คว츠였다”고 트렌드 쇼에서 말했다. 이 두 가지를 통해 평화와 균형의 느낌을 가질 수 있을 것이라고 말이다. 그 말대로 우리는 이 컬러들을 보며 마치 충분히 햇살을 받아 따뜻해진 해변가에 앉아 점점 핑크빛으로 물드는 하늘을 마주하는 듯한 기분을 느낄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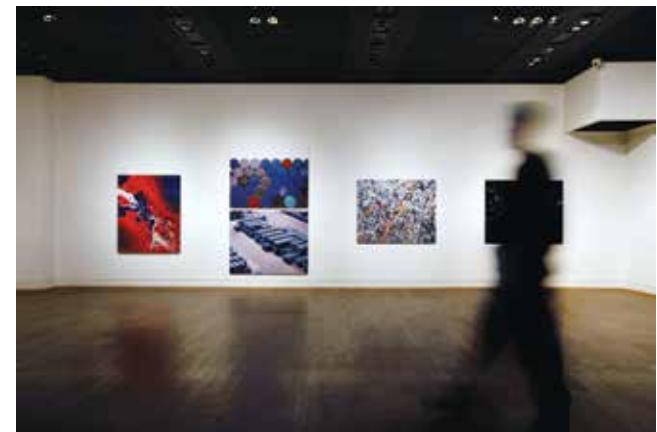
팬톤 사의 발표와 함께 화장품, 패션 업계를 시작으로 로즈คว츠와 세레니티를 이용한 제품들이 속속 등장하고 있다. 노루 팬톤색채연구소 또한 올해의 컬러를 통해 각종 서비스를 제공한다. 지난해의 컬러였던 마르살라의 유행 사례처럼, 해마다 팬톤이 발표하는 올해의 컬러가 제품 판매에 영향을 미치다 보니 각 업체들이 빌빠르게 반응하고 있는 것이다. 업계의 이러한 반응은 소비자들이 컬러 트렌드에 민감해졌다는 것 또한 의미한다. 이에 앞으로도 다양한 분야에 걸쳐 팬톤 올해의 컬러 로즈คว츠와 세레니티를 활용한 제품들이 지속적으로 출시될 것으로 예상된다.



## 우리의 아름다운 민낯

### NOROO 70주년 기념 사진전

쉼없이 달려온 70년 역사의 흔적, 페인트를 탄생시키는 땀의 현장, 강한 직선과 단단한 곡선으로 만나고 겹쳐지며 페인트를 실어내는 공장의 파이프와 드럼통. 변순철 작가의 셔터 안에 담긴 NOROO의 면면은 익숙하지만 낯설고, 꾸미지 않았기에 더 강렬하며, 고요한만큼 강인하다. NOROO의 민낯을 집요하게 찾아들어간 변순철 작가와 NOROO의 콜라보레이션, NOROO 70주년 기념 사진전 <NOROO -色을 지배하다>에서 우리는 NOROO의 아름다운 원형을 발견한다.



### NOROO의 초상화를 보다

그것은 태양의 흑점이 폭발하는 순간이었다. 페인트는 공장의 소음과 규칙적인 노동 속에서 시시각각 우주를 탄생시키고 반짝이는 은하수로 범람했다. 거침없이 쌓인 페인트의 흔적은 추상화처럼 강렬하고 작업 중 무심히 칠해 놓은 색면은 화가의 작품만큼이나 감각적이다. 페인트를 섞은 자국은 마치 달항아리의 유약처럼 부드러움이 흘러내리고, 페인트가 겹겹이 쌓이며 만든 세월의 켜는 수묵으로 담은 겨울 산의 풍경처럼 그윽하다. 늘 보던 그대로의 모습이건만 전시장 속 액자를 통해 보니 자신의 얼굴을 증명사진으로 보듯 새롭다. 지난 가을, 서울 인사아트센터에서 열린 NOROO 70주년 기념 사진전 <NOROO -色을 지배하다> 속 NOROO의 모습이다.

“간결하게, 직면한 느낌으로 전달하고 싶었습니다. 사람처럼 공간과 사물에도 수많은 감정이 존재하는 무표정이 있습니다. 그걸 자연스럽게 담아내려 했지요.”

변순철 작가가 설명한 바와 같이, 그의 사진 속에서 NOROO는 사물을 통해 사람처럼 분명한 인상을 갖는다. 그가 찍은 공장의 파사드, 즉 외관은 강직하고 올곧은 첫인상과 함께 세월의 흔적을 안고 있어 70년 NOROO의 역사만큼 믿음직하다. 이렇듯 페인트의 색과 공장의 모습에서 본질적 물성을 찾아내기 위해 변순철 작가는 약 여섯 달에 걸쳐 국내외 NOROO의 공장을 수십 번씩 찾았으며 대상을 몇 번이나 고찰한 후에야 셔터를 누를 수 있었다.



거침없이 쌓인 페인트의 흔적은 추상화처럼 강렬하고 작업 중 무심히 칠해 놓은 색면은 화가의 작품만큼이나 감각적이다.



### 아름다운 시선을 따라가다

전시 첫날, 인사아트센터를 찾은 한영재 회장은 변순철 작가의 이번 작품에 대해 “우리가 늘 하드웨어적으로 보던 것을 전혀 다른 새로운 시각으로 보여 주니 신선하다. 일상적인 장면들이 살아 움직이는 듯한 느낌을 선물받은 것 같다”는 감상을 남겼다. 작품에는 어떠한 제목도 붙어 있지 않기에 작가의 시각을 따라 들어가서 찾게 되는 의미와 직면하는 인상은 모두 다를 수 있다. 하지만 한영재 회장의 평처럼 각각의 감상은 살아숨쉬는 NOROO의 일상과 현재, 그리고 역사에 연결된다. 변순철 작가의 파인더를 통해 우리가 찾은 NOROO의 아름다운 민낯은 그렇게 여러 시선과 시간의 흐름 속에서 쉼없이 변화하며 앞으로 나아갈 것이다.



### 形, 色, 人

최근 예술이 화두가 되면서 기업과 예술가의 콜라보레이션을 자주 접할 수 있다. 그중 NOROO와 변순철 작가의 콜라보레이션은 실험적이라 할 수 있는데, 인물사진을 주로 찍어온 작가에게 ‘人’뿐만 아니라 ‘形’과 ‘色’의 주제를 맡겼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이번 사진전을 기획한 (주)노루홀딩스 브랜드 커뮤니케이션실 한경원 실장은 변순철 작가의 〈전국노래자랑〉 시리즈에서 그 접점을 찾았다고 말한다.

“컬러 사진으로 그 많은 감정을 리얼하게 담으면서도 애틋하고도 세련되게 표현하셨더라고요. NOROO의 컬러와 역사, 그리고 회사의 주인인 근로자들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담아

내는 데 가장 적합한 작가라고 생각했습니다.” 한경원 실장의 예상은 정확했다. 〈짝-폐〉, 〈전국노래자랑〉 등을 통해 대상의 모습을 꾸밈없이 보여주며 내면의 본질과 그가 속한 시대성, 뿌리를 함께 드러내었던 변순철 작가의 시선은 이번에도 NOROO를 깊이 파고들어 NOROO가 가진 ‘形, 色, 人’을 카메라 속 거울로 비춰 내었다. 어느 잡지의 인터뷰에서 변순철 작가는 “컬러에는 리얼리티가 있고, 훨씬 파워풀하다. 또한 사진은 형식과 내용이 일치하고 현실을 드러낼 때 힘을 진다”고 말한 바 있다. 그러한 생각을 가졌던 변순철 작가이기에 이번 콜라보레이션은 더욱 의미있는 작품을 낳을 수 있었던 것이 아닐까.

# 그렇게 우리는 친구가 된다

## (주)노루홀딩스 브랜드 커뮤니케이션실 제갈은경 대리와 친구들

햇빛이 쏟아지는 들판, 나무 아래에 서 본 적이 있는가. 수많은 나뭇잎들은 햇빛을 반사하며 더욱 풍성한 빛을 만든다. 호수 위 잔물결들은 또 어떤가. 빛을 이고 목걸이처럼 이어져 흔들림으로써 더욱 아름답다. 친구들이란 내게 이런 순간을 가져다 주는 이들일 것이다. 내게 세상의 수많은 면면을 비춰주고 잔물결처럼 추억을 잊는 이들. 시작과 끝이 흐릿한 기억에 늘 함께하는 주인공들. 그래서 햇빛 가득한 들판에 선 듯 따뜻하고 편안한 사람들. 제갈은경 대리와 그 친구들이 팝아트 체험을 함께한 어느 토요일 오후는 그런 반짝이는 날들 중 하루였다.



## 미소로 그리는 시간

“그러게, 우리 어떻게 친해진 거지?” 어떻게 친해지게 되었냐는 질문에 대한 마지막 대답은 되물음이었다. 누구에게서 나온 목소리였을까. 제갈은경 대리와 친구들은キャン버스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각자 희미한 미소를 짓고 있었다. 모두 디자인을 전공한 이들답게 붓질이 능숙했지만 조금씩 달랐다. 제갈은경 대리는 붓자국이 남지 않도록 차분하고 진중히 면을 채웠고, 그 옆에 앉은 안수연 씨는 대범하게 색을 선택해 가며 성큼성큼 붓을 놀렸다. 김예진 씨는 연한 파스텔 톤으로 조심스레キャン버스를 채웠고 서수경 씨는 스케치에 없었던 무늬를 꼼꼼히 그려넣으며 세심히 칠했다.キャン버스에 담은 그림들도 엄마와 할머니, 자화상, 엄마와 자기 자신, 조카 등으로 제각각이다.

마치 팝아트의 원색처럼 각각 다른 컬러를 지닌 친구들이다. 뚜렷한 라인으로 경계를 지으면서 볼륨과 형태를 그려낸 팝아티스트 로이 리히텐슈타인의 그림이 그랬듯, 그녀들이 지닌 개성을 서로 얹혀 넷을 하나로 묶는 외곽선이 되었다. 함께한 지 벌써 11년. ‘우리가 어떻게 친해진 거지?’란 질문에 굳이 답을 말하지 않아도, 눈을 마주치지 않아도, 서로 미소가 그려질 만한 시간을 같이 보냈다.





### 다 다르니까 친구

“같은 학과에서 만났는데 학번은 두 명 외엔 다 달라요. 그런데 나이가 같고, 성격이 서로 잘 맞다보니 뭉쳐 다니게 되었어요. 선배들이 그렇게 너희끼리 다니다간 시집 못간다고 했는데...” 활달한 말투의 안수연 씨는 웃으며 네 명의 이야기를 풀었다.

“우리끼리 담당하는 역할이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엉뚱한 일을 벌여서 에피소드를 만들고, 수경이는 빵빵 터지는 유머로 우릴 웃겨주죠. 예진이는 리액션 담당이고요. 은경이는 시작과 마무리 담당이랄까? 계획하고 준비하는 걸 맡아서 책임감을 가지고 이끌어요.”

이번 체험을 신청하고 친구들 일정을 체크하며 챙긴 것도 제갈은경 대리였다. “체험 공지를 봤을 때 당연하게 친구들이 떠오르더라고요.” 제갈은경 대리는 부드러운 미소와 함께 대답했다. 소소한 일상은 물론, 사회생활 속 고민을 나누며 수많은 주말과 크리스마스, 명절을 함께 보낸 이들에게 서로는 어떤 존재일까.

“다이어리같은 친구? 나도 기억 못하는 걸 기억해 주는!”, “때론 가족보다 더 가깝죠. 가족에게는 말 못할 자잘한 고민도 나누니까요.”, “서로 무안을 줘도 끊임없이 이야기할 수 있고요!” 이어지는 그들의 이야기에 물결이 이듯 잔잔한 웃음들이 일어난다.



### 장작인더아트

팝아트체험을 진행하는 장작인더아트는 홍대 앞에 위치해 있다. 미리 예약하고 사진을 보내면 준비되는 스케치에 직접 컬러링하여 캔버스 액자를 완성할 수 있다.

팝아트 체험 외에도 유리공예, 떡케익 등의 체험이 가능하며 작가의 유리공예 작품도 구입할 수 있다.

[www.jjintheart.com](http://www.jjintheart.com)

### 언제나 최고는 지금

네 개의 캔버스가 채워지고 공방 선생님이 마무리를 돋자 드디어 작품이 완성되었다. 마지막으로 단체사진을 찍기 위해 네 명이 캔버스를 들고 동시에 카메라를 바라보니, 그녀들의 개성과 에너지가 강하게 드러난다. 넷이라서 좋은 점이 뭐냐는 질문에 “짝이 맞아서 좋아요”라고 한 대답처럼, 넷은 마치 잘 맞추어진 루빅스 큐브같이 더할 것도 뺄 것도 없는 완벽한 조합을 이루고 있었다.

“저흰 십년 전보다 지금이 더 친한 것 같아요”라는 그들의 말은 시간을 공유한다는 것의 힘을 전한다. 친구라는 존재에 의해 그 숫자만큼 더 풍성해지고 깊어지는 시간과 이야기. 그렇게 그들은 친구가 되었고, 올해도 내년도 그리고 또 십년 후에도 함께할 것이다. 그때도 그들은 ‘지금이 제일 좋아’라는 말을 하게 되지 않을까.



제갈은경 대리

서수경 씨

김예진 씨

안수연 씨





## 컬러를 파는 페인트 가게

### 전략특약점 1호 매장 페인트마켓

"Need help with colour?" 매장의 유리창에 쓰인 문구가 컬러 차트를 펼쳐 보이며 손짓한다. 문을 열고 들어서니 따스해 보이는 원목 테이블과 푹신한 의자가 이리와 앉으라고 권한다. 하얀 페인트 옷을 입은 디지털 피아노는 컬러풀한 악보를 품고, 상큼한 노란색의 진열대 위에 놓인 색색의 페인트 통은 마치 인테리어 소품처럼 느껴진다. 컬러를 파는 페인트 가게, 인천에 위치한 전략특약점 1호 매장 페인트마켓의 첫인상이다.



### 특약점의 출발

산뜻한 카페같은 매장, 페인트마켓은 지난 2015년 3월에 오픈하여 아직 1년이 채 되지 않은 신생매장이다. 그러나 조승완 사장은 '바쁘다바빠'를 입에 달고 산다. 요즘같은 불경기에 게다가 페인트 비수기라는 겨울인데 반가운 소리가 아닐 수 없다. "대리점을 오픈하고 인테리어를 두 번이나 다시 한 데다가, 시공과 판매를 겸하니 정신이 없네요!"라며 쉬지 않고 울리는 전화를 받는 조승완 사장, 그리고 그의 아내이자 사업 파트너인 윤리사 실장의 분투기를 들어보자.

"원래 친형이 운영하는 페인트 대리점에서 12년 동안이나 공사를 해 왔죠. 그런데 여기 김래수 과장이 노루페인트를 가져와서 자꾸 써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써 보니 정말 좋아요. 다른 브랜드와 똑같은 용량을 희석해 보면 노루 것은 점도가 높아서 더 많은 용량이 나와요. 품질도 좋고요. 그래서 새로 대리점을 차릴 때도 노루페인트 특약점 하라는 김래수 과장의 꿈에 넘어갔죠." 옆을 지키던 김래수 과장은 조승완 사장을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는 분'이라고 말한다.

### 전략특약점으로의 도전

직접 시공을 하면서 새로운 제품 써보는 것에 적극적인 조승완 사장은 그렇게 NOROO를 선택했다. 그리고 도전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다. 특약점을 내면서 사업에 합류한 아내 윤리사 실장은 시공업자뿐만 아니라 일반 소비자들에게도 편안한 매장으로 만들고자 카페처럼 인테리어를 바꾸었고, 이를 본 (주)노루페인트 인천지점 홍성원 영업지점장은 듀렉스 카페를 제안해 전략특약점 제1호로 다시 단장, 지금의 페인트마켓으로 탄생하게 된 것이다.

“창업 후 1년도 안되어 인테리어를 두 번이나 했으니 정신 없었죠. 그런데 리뉴얼 후 내방객의 만족도가 굉장히 높아졌어요. 비싸다는 인식에 보지도 않던 듀렉스는 추천하는 대로 사고요, 가격 흥정도 안 합니다. 다시 구매하러 오시는 분들도 많아요.” 윤리사 실장의 설명이다. 윤실장은 페인트에 입문한 지 1년도 안 되었지만 김래수 과장의 말에 따르면 이젠 10년 경력자보다 페인트 지식이 더 많아졌단다. 지난 11월에는 상해 국제도료페인트박람회까지 다녀왔을 정도로 적극적이다. 윤리사 실장의 맞춤형 고객 응대는 오는 손님들을 모두 단골로 만들어버리는 능력을 발휘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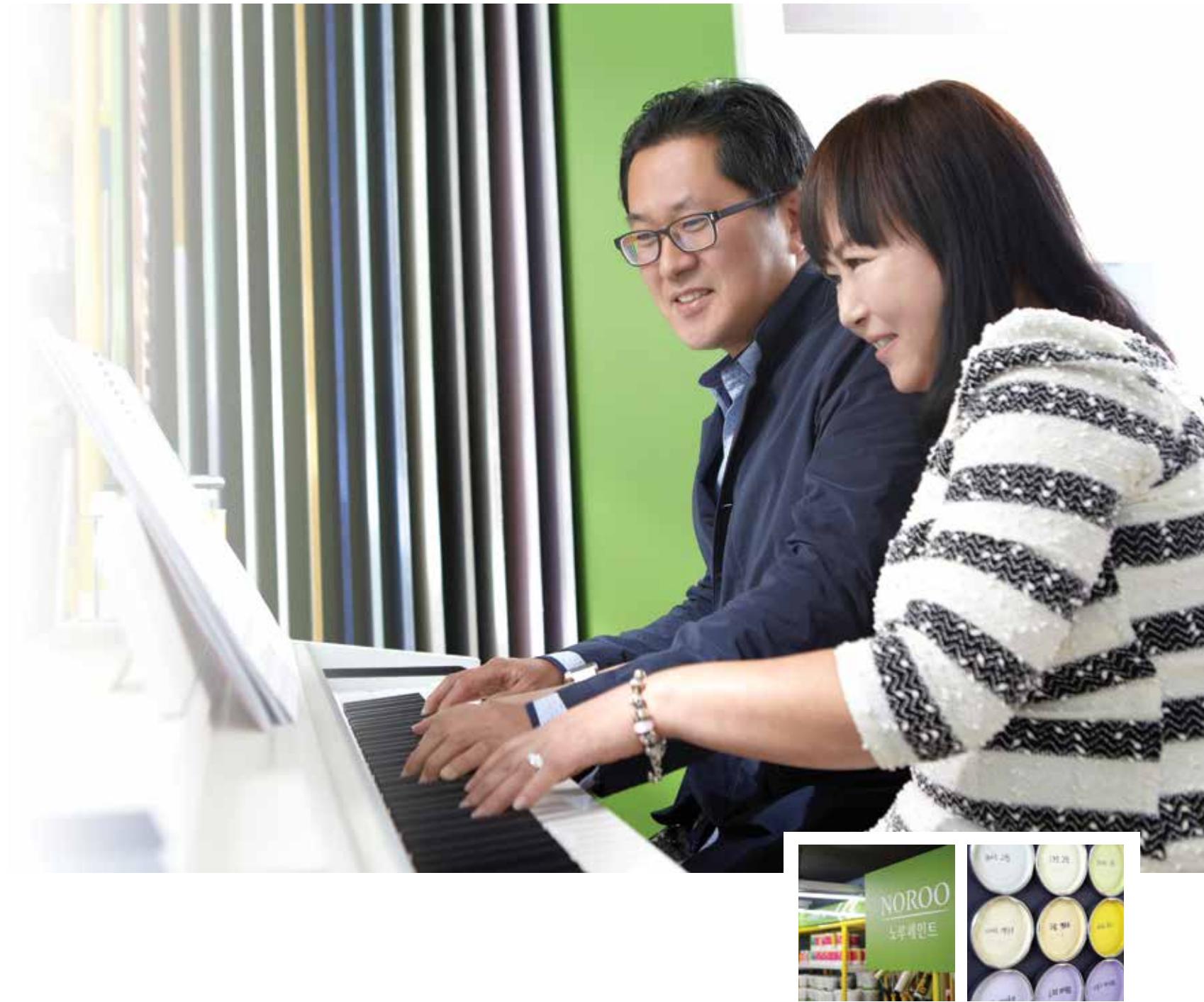
“아직은 시공 부분의 매출이 높아요. 하지만 마진폭은 판매 쪽이 높죠. 특히 듀렉스 안티포름알데히드를 타겟으로 하여 멀리 송도에서도 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홍보가 더 이루어지면 훨씬 많은 매출이 일어날 것이라 기대합니다”라며 그녀는 환한 미소로 매장을 밝게 채운다.

### 고객과 컬러 사이, 페인트마켓

페인트마켓은 동명의 인터넷 쇼핑몰도 운영한다. 쇼핑몰에서 구입한 손님에게는 먼저 문자를 보내어 문의를 돋고 카톡으로 일일이 시공을 상담해 주기도 한다. 직접 시공 동영상을 찍어 올려 초보자들에게 페인트 시공에 대한 정보는 물론, 나도 할 수 있다는 용기도 얹어준다.

현재 하고 있는 일로도 바쁘지만 조승완 사장과 윤리사 실장은 아직도 하고 싶은 일이 많다.

“앞으로는 노후한 건물을 찾아 사진을 찍고 내 나름대로 컬러 디자인을 해서 건물주를 만나는 영업 방법도 계획 중입니다. 함께 시공하는 식구들과 해외여행도 한번 가고 싶고요. 그리고 판매도 더 늘려가야죠. 우리 윤실장과 홍성원 지점장님, 그리고 페인트마켓을 물심양면으로 지원해 주신 대영상사의 사장, 조영진 형님 덕에 여기까지 왔습니다. 형동생 하며 지금 까지 도와준 김래수 과장은 말할 것도 없고요.” 함께 일하는 사람들을 진짜 식구처럼 아끼는 조승완 사장이다. 그 마음에 윤리사 실장은 피아노를 직접 연주하며 “You raise me up”이라는 노래를 띠운다. 사람과 사람을 잇는 노래처럼, 고객과 컬러를 이어가는 페인트마켓의 이야기는 앞으로도 바쁘게 이어질 것이다.



사람과 사람을 잇는 노래처럼,  
고객과 컬러를 이어가는 페인트마켓의 이야기는  
앞으로도 바쁘게 이어질 것이다.



# 카자흐스탄의 첨단온실, 미래를 재배하다

지난해 11월 27일, NOROO 그룹의 농생명 시설사업부문을 담당하는 (주)기반엔지니어링의 카자흐스탄 현지법인 기반아그로가 카자흐스탄 국립 농업대학교와 시설원예사업 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카자흐스탄 국립농업대학교에서 외국인 명예교수 1호를 수여받은 한영재 회장은 “한국의 첨단 IT기술을 접목하여 카자흐스탄의 농업 여건에 적합한 재배기술을 개발하고 온실시설원예 사업을 통해 장기적인 동반자로서 이바지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미 2015년 5월부터 NOROO그룹이 함께해온 카자흐스탄 자르켄트 지역의 온실농장에서는 첨단 IT기술로 토마토가 쑥쑥 자라고 있다.

## NOROO 그룹, 농생명 기술력을 키운다

NOROO그룹 농생명부문의 주력회사인 (주)노루기반은 자회사인 (주)기반엔지니어링을 통하여 카자흐스탄에 현지법인인 기반아그로를 세우고 지난 6월 19일 카자흐스탄 국립농업대학교와 공동연구개발 협약 양해각서(MOU)를 체결한 바 있다. 카자흐스탄 국립농업대학교는 카자흐스탄에서도 손꼽히는 수준의 농업 연구 시설 및 기술을 보유한 곳으로, 카자흐스탄의 옛 수도인 알마티에 자리하고 있다. 현재 수도는 아스타나로 바뀌었지만, 알마티는 여전히 카자흐스탄 및 중앙아시아

전체에서도 가장 큰 도시일뿐만 아니라 경제와 문화의 중심지로 기능하고 있다. 카자흐스탄은 일광과 일조량이 풍부해 과채류와 화훼류의 당도 및 색상이 좋고 우수한 품질의 상품 생산에 유리한 국가다. 만약 날씨에 관계 없이 고품질 상품을 공급할 수 있게 되면 국가적 차원의 수출 산업으로 육성하는게 가능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이에 (주)노루기반은 MOU를 통해 한국과 카자흐스탄 농업의 교류와 발전을 위한 기술을 보급하고 연구를 공동으로 진행하기로 한 데 이어 농업기술연구센터를 개설했으며 2015년 8월에는 첨단 IT 기술을 이용해 온실농장에서 토마토를 재배하기 시작했다. 중앙아시아의 너른 대지에 위치한 이 온실은 온실 자동화 환경제어시스템으로 사계절 생산을 위한 설비를 갖추고 있다.

또한, 첨단온실에 설비와 자재를 공급함은 물론, 산학협력과 지역주민협력을 통해 차후 카자흐스탄 국립농업대학교와 공동으로 브랜드를 만들어 유통과 수출을 꾀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카자흐스탄 국립농업대학교 학생들은 전문 기술 인력으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주)노루기반 관계자는 “농업기술은 고품질 상품 개량뿐 아니라 식량 보급과도 연관된 중요 기술 중 하나다. 노루기반은 국립농업대학교와의 협업을 통해 다양한 기술 발굴 및 보급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세계적인 이상기후로 세계식량계획(WFP)가 세계 식량 위기의 확산을 우려하고 있는 가운데, NOROO 그룹은 이처럼 농생명 기술에 선구적인 도전을 함으로써 또 한번 사업보국의 역사를 만들 것으로 기대된다.

# News Briefing

- 뉴스 브리핑



(주)NOROO그룹 시무식 실시



(주)노루페인트, 웹어워드코리아 모바일웹마케팅부문 최우수상 수상



(주)노루페인트, 서울대학교에 올해의 컬러 적용



(주)노루페인트, 연탄배달 봉사활동 실시

## (주)노루홀딩스

### 2016 NOROO그룹 시무식 실시

2016년 1월 4일, NOROO그룹은 안양 본사 복지관에서 시무식을 열고 도전의 한해를 열었다. 시무식은 국민의례와 사훈복창, 신년하례의 차례 후 사장단 및 임원 승진에 따른 임명장 수여, 한영재 회장의 신년사와 참석자 전원의 사가제창으로 이어졌다. 임명장 수여식에서는 지난 12월 31일 발표된 인사 내용에 따라 변정권 노루도로(상해)유한공사 등시장 겸 총경리가 해당 임명장을 수여받았으며, 신준 (주)노루비미칼 대표이사 부사장, 이성규 (주)노루일앤씨 겸 (주)노루케미칼 대표이사 부사장이 각각 해당 임명장을 받았다. 또한 상무와 상무보로 승진한 임원들 역시 임명장을 수여받아 새로운 각오를 다졌다. 이후 한영재 회장은 신년사를 통해 지난해의 노고를 치하하고 “세상에 없는 길, NOROO가 만드는 새로운 길”이라는 NOROO WAY의 경영철학을 2016년 그룹의 경영지표로 발표하며 적극적인 도전정신과 용기를 복돋웠다. 이에 참석한 전원은 힘찬 사가제창으로 도전을 이어갈 새해를 맞이하여 몸과 마음을 정비하였다.

## (주)노루페인트

### (주)노루페인트, 웹어워드코리아 모바일웹마케팅부문

#### 최우수상 수상

(주)노루페인트는 '제12회 웹어워드코리아' 모바일웹마케팅부문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주)노루페인트 모바일웹사이트는 인터넷 홈페이지의 각종 정보와 서비스를 스마트폰에서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사용자의 편의성을 높이는 데 중점을 두어 개발된 것으로, 특히 사진 촬영이 가능한 모바일의 장점을 적극 활용할 수 있는 가상페인팅서비스와 셀프페인팅 교육이 진행되는 노루아카데미의 신청이 편리하며, 페이스북, 블로그의 연동으로 DIY, 셀프인테리어 등 다양한 콘텐츠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주)노루페인트 제품의 상세한 정보들을 쉽게 확인할 수 있는 최적의 UI, UX와 컬러전문기업으로서의 아이덴티티를 반영한 디자인으로 모바일웹사이트를 구성하였다. 웹어워드코리아는 한국인터넷전문가협회가 주최하고 미래창조과학부가 후원하는 행사로서 유무선 기반의 웹사이트들을 대상으로 국내를 대표하는 웹전문가로 구성된 2,000명의 평가위원단

이 가장 혁신적이고 우수한 웹사이트들을 선정, 평가하는 시상식이다. (주)노루페인트는 공식블로그 '친친노루'가 2013 웹어워드코리아 기업블로그부문에서 수상한 데 이어 올해 또 수상의 영예를 안게 되었다.

(주)노루페인트는 “고객과의 적극적인 소통과 더불어 정보서비스 이용의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디지털 채널을 지속적으로 개발할 것”이라고 말했으며, 이어 “노루페인트 블로그 '친친노루'의 하이브리드앱 버전을 2016년 2월에 선보일 예정으로, 친친노루 사용자들은 더욱 흥미로운 서비스를 경험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 (주)노루페인트, 서울대학교에 올해의 컬러 적용

지난 1월 7일 서울대학교 신공학관 1층 정면은 팬톤이 2016년 올해의 컬러로 선정한 로즈คว츠Rose Quartz(13-1520)와 세레니티Serenity(15-3919)로 페인팅되었다. 이는 2015년 마르살라 컬러 적용에 이어 두 번째로 적용한 것으로, 해당 벽면에는 (주)노루페인트와 팬톤을 소개할 수 있는 표지판을 설치하여 컬러에 대한 내용과 함께 홍보하였다. 서울대학교 신공학관 1층 정면은 매년 팬톤 올해의 컬러가 적용됨으로써 (주)노루페인트의 컬러 감각을 전하는 홍보면으로 운영되고 있다.

### (주)노루페인트, 연탄배달 봉사활동 실시

(주)노루페인트는 지난해 연말을 맞아 12월 12일, 어려운 이웃들을 위한 '사랑나눔 연탄배달 봉사활동'을 실시했다.

(주)노루페인트 임직원 및 지역사회 봉사자 100명으로 구성된 사랑나눔 봉사단은 연탄 4,500장과 약 3백만 원 상당의 이불을 기부, 안양 본사 인근 지역 호현마을에 거주하는 독거노인·조손가정·소외계층 가정에 배달했다.

이번 행사에 동참한 (주)노루페인트 노동조합 박연수 위원장은 “노루페인트 임직원들이 봉사활동을 통해 나눔의 기쁨을 느끼고 우리 이웃들을 돌아보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지역거점회사로써 지역과 함께하는 봉사활동을 지속적으로 동참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주)노루페인트 임직원들은 보육원 등 소외시설 방문을 통해 내외벽 및 각종 시설물을 재도장해 주는 봉사활동 외에도, 정부기관, 기업, 대학생 등과 손잡고 저소득층 및 장애시설 등에 벽화를 그리는 등 사회공헌활동을 오래전부터 자체적으로 매년 지속하고 있다.



# 눈을 감아요. 들려드릴게요!

운전을 할 때, 추운 겨울 이어폰을 끼고 음악을 들으면서 길을 걸을 때, 요리 중이라 손이 젖었을 때 문자나 카톡이 온다면? 누군가 대신 읽어 주었으면 하는 그런 순간들을 위해 '읽어 주는 앱'들이 있다. 카톡만이 아니라 문자, 페이스북 메신저는 물론 책을 대신 읽어 주고 뉴스를 들려 주는 등 다양한 '읽는 앱'을 소개한다. 스마트폰 화면으로 피곤한 눈을 감고, 이제 들어 보자.

## 카톡, 라인, 밴드 모두 음성으로

'카톡을 읽어줘'로 알려졌던 앱이 'All Read 4U'란 이름으로 바뀌었다. 이 앱은 카톡과 라인, 밴드, 비트윈, 페이스북 메신저 등의 메신저 앱을 읽어 준다. 진동 모드와 무음 모드에서는 읽기 지원을 하지 않고, 이어폰이 연결되었을 때만 읽기를 가능하게 설정할 수 있어서 편리하다. 메신저 종류 중 음성 지원을 원하는 것만 선택할 수도 있다. 'ByVoice2'도 같은 종류의 앱이다. 메신저 앱 외에도 시스템 알림, 수신 전화 등 상단 상태 바에 알림을 표시하는 앱이라면 뭐든지 그 알림을 음성으로 읽어 준다. 휴대폰을 보지 않고도 누구에게 전화가 있는지 알 수 있으며 운동 중 땀에 젖은 손으로 휴대폰을 만지지 않아도 내 글에 누가 댓글을 달았는지 확인할 수 있는 것. 이 앱에는 폰을 뒤집을 시 바로 읽기 모드를 정지하는 기능도 있다. 7일간은 무료로 사용할 수 있다. '알림을 읽어줘' 앱도 비슷한 기능을 제공한다. 이 앱들은 모두 안드로이드 폰을 위한 것으로, 구글 플레이 스토어에서 다운받을 수 있다.

## 뉴스, 간편하게 들으세요

출퇴근 길에 흔들리는 버스나 전철 안에서 뉴스를 읽었다면, 이제 편하게 들어 보자. 안드로이드 폰에서도 들을 수 있었던 인기 앱 '데일리(day.ly)'가 아쉽게도 휴식기로 서비스를 중단한 가운데, 아이폰에서는 'Speakly'라는 서비스가 유료로 제공 중이다. 선택한 언론사, 관심 카테고리로 모은 뉴스 등을 읽어 준다.

## 손과 눈이 자유로운 책 읽기

E-Book 어플들에서도 음성으로 책을 읽어 주는 기능을 제공한다. 교보문고 e-book 어플에서는 구입한 책에서 '듣기' 버튼을 누르면 본문 내용이 음성으로 서비스된다. 남성, 여성, 아동의 목소리를 선택할 수 있으며 빠르기 조절도 가능하다. 1등 전자책 서점을 자랑하는 리디북스 앱도 같은 서비스를 제공한다. 무료책과 50% 할인책 등 다양한 혜택이 있으니 음성 서비스를 체험한 후 구입하는 것도 좋겠다. 모두 안드로이드 폰, 아이폰을 지원한다.



〈2016 노루 인터내셔널 컬러 트렌드 쇼〉 현장 한켠에 마련된 질문 코너에 참가자가 질문을 적어 넣고 있습니다. 참가자들의 적극적인 질문으로 강연은 더욱 생동감있게 진행되었습니다. 참가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NOROO 70주년을 맞아 지난해 열린 〈NOROO-色을 지배하다〉 전에 한영재 회장님과 변순철 작가님, 한경원 실장님, 전시장을 찾이하신 내방객들이 함께 모여 기념사진을 찍었습니다. 이 사진 또한 NOROO의 역사 속 한 장면이 되겠지요.



카지흐스탄의 기반아그로를 방문, 첨단 IT기술을 이용한 온실농장을 둘러보신 한영재 회장님께서 현장에서 갓 딴 토마토를 시식하셨군요. 한입 베어낸 토마토가 꼭 하트를 닮았네요!

